



제18권 제4호

**KREI**

#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최용호 yonghochoi@krei.re.kr      061-820-2191  
              임채환 herolch@krei.re.kr      061-820-2038

# 제18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1. 포커스

- WFP의 대북 영양 및 재난지원 ..... 3

## 2. 북한농업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3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33

##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 49

##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 57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 67

##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요구 ..... 75
- 현시기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 원칙 ..... 80

## 6. 부록

- 남북한 교역 통계 ..... 87
- 북한의 시장 동향 ..... 91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 96

조선





PART 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포커스

WFP의 대북 영양 및 재난지원

# KREI



# WFP의 대북 영양 및 재난지원<sup>1)</sup>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요 약

-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해 10~12월에 북한 63개 군 지역의 어린이 533,470명, 임신부와 수유부 115,961명에게 영양강화비스킷 6,423톤과 영양강화시리얼 2,236톤을 공급했다.
-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식량사업(FDRR)’ 2개 프로그램과, 복구활동 참여자에 대한 3개 식량제공사업이 종료되었다. 8~9월의 흉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북부지역의 제방을 복구하는 작업 등이 이들 활동에 포함되었다.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학자 2명이 WFP가 지원하는 현지 식품공장 11곳 모두에 방문했다.
- WFP는 11월에 다른 인도주의 단체 및 북한 정부와 함께 흉수 피해 지역에 대한 공동평가단 활동에 참여했다.
- 현장 모니터 요원들은 모니터링을 위해 총 302개소의 민가, 아동기관, 소아병동을 방문했다.
- 현재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은 크게 부족하다. 2016년 말 현재, 2017년도 사업 추진 소요액의 62%인 3,070만 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

## 1 WFP의 지원 개요

2016년 4분기 들어 WFP는 북한에서 매일 추진하는 영양지원사업에 더해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식량사업’ 활동을 추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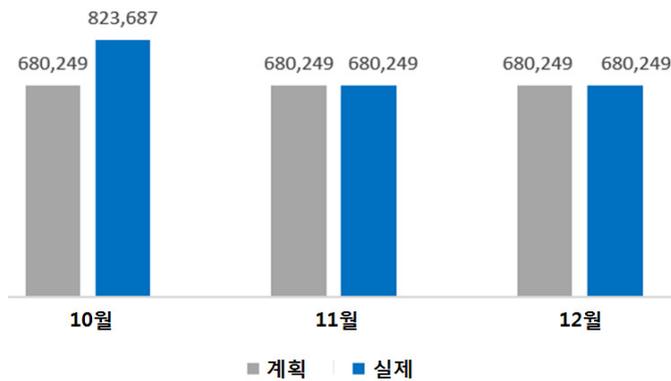
2017년 4월 말 경에는 WFP가 영양 지원을 위해 이용하는 핵심 품목(밀, 옥수수)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2016년 12월 이에 대한 선행조치로 영양강화비스킷 배급량을 계획 배급량의 66%로 줄였다. 이는 영양 부족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계점이다. 이러한

1)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분기 모니터링 보고서(2016년 10~12월), ‘WFP DPR Korea Quarterly Monitoring Report - DPRK Nutri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Women and Strengthening Community Capacity to Reduce Disaster Risks(PRR0 200907)’를 번역·정리한 것임.

WFP의 결정은, 새로운 자금을 즉각 지원받아도 재료를 조달해 영양강화비스킷 생산을 재개 하려면 4~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북부지역의 수혜자들에게는 배급량을 줄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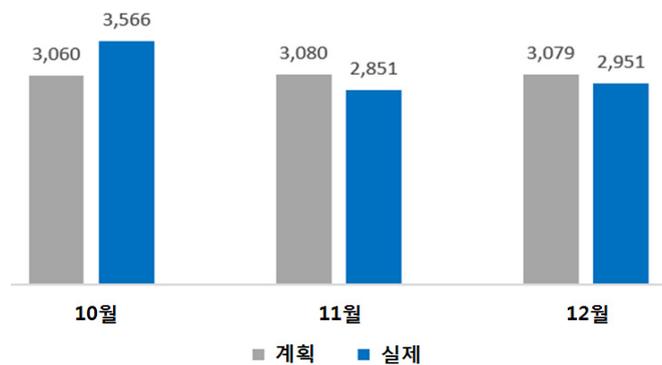
2016년 4분기 기간 동안 WFP는 월평균 72만 8,000명을 지원했는데, 이는 목표 수혜자 수의 107%에 해당한다. 실제 수혜자 수가 목표 수혜자 수보다 많았던 이유는 함경북도의 홍수 발생에 따라 추가로 14만 3,438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6년 4분기의 월별 목표 수혜자 수와 실제 수혜자 수(명)



영양강화시리얼과 영양강화비스킷 지원의 경우, 2016년 4분기 기간 동안 월평균 3,123톤을 제공했으며 이는 목표 배급량의 101%에 해당된다. 2016년 12월에는 한때 영양강화비스킷 배급량이 계획 배급량의 66%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지원량을 증가시킨 후 실제 식량 배급량이 목표 배급량에 근접하게 되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2016년 4분기의 월별 목표 배급량과 실제 식량 배급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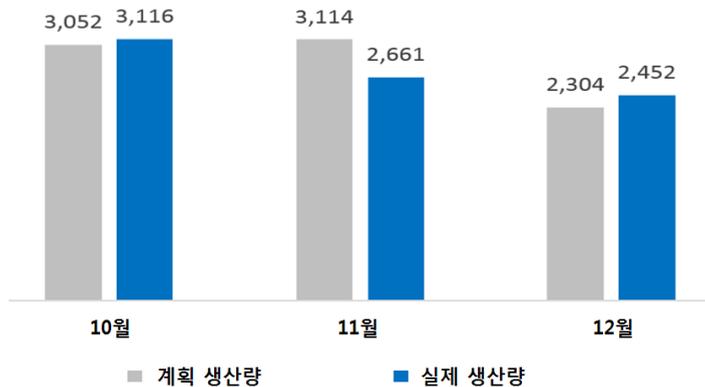
## 2 현지 식품생산

WFP의 영양지원계획을 위한 영양강화 비스킷과 영양강화 시리얼 생산은 현지 공장 11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지 식품 생산공장 가동 지원은 1998년부터 WFP의 북한 내 핵심 사업이며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WFP는 현지 공장의 개선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하는 식료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분기에 식품공학자 2명이 WFP가 지원하는 현지 식품공장 11곳 모두를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WFP 요원과 공장 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중이다.

북한 지역의 11개 공장에서 2016년 4분기에 생산한 영양강화시리얼과 영양강화비스킷은 총 8,229톤이다. 11월에는 실제 생산량이 목표보다 적었는데, 그것은 겨울철 대비로 10월에 생산된 물량의 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춥고 전력 소비량이 많은 1~2월의 전력 부족에 대비해, 12월에는 목표 생산량(2,304톤)보다 더 많은 양(2,452톤)을 생산해 놓았다.

그림 3 2016년 4분기의 월별 영양강화식품 생산량(톤)



## 3 홍수피해 대응 활동

8월 말과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로 함경북도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 정부는 이 재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6만 9,000명이 집을 잃었으며 14만 명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WFP는 6개 군(무산, 연사, 회령, 온성, 경

원, 경흥) 지역의 14만 3,000명에게 1개월 치 영양강화비스킷과 콩을 긴급하게 지원했다.

2016년 10~11월, WFP는 복구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수 피해가 큰 3개 군(무산, 연사, 회령)에서 식량 제공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지역에서 홍수 피해 제방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식량을 지원받은 인원은 총 2만 9,311명이다. 10월에 실시한 1차 사업만으로도 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을 합해 수혜자는 총 11만 4,312명이다. 이들이 배급받은 품목은 콩 430톤과 야자유 43톤이다. 이 활동을 통해 총 13.6km의 제방이 복구되어 지역사회의 추가 재해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2016년 10~12월 기간 동안, WFP는 무산, 연사, 회령군 지역의 어린이 3만 818명과 임신부, 수유부에 대해 영양 지원을 실시했다. WFP는 이들에게 영양강화비스킷 27톤과 영양강화시리얼 106톤을 제공했으며, 이 지원사업은 2017년 3월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WFP는 2016년 11월에 북한 정부, 9개 인도주의단체들과 함께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대한 공동평가단 활동에 참여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WFP의 지원물품이 제대로 배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평가활동을 통해 영양실조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과 영양가 높은 식료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 4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식량사업(FDRR)

WFP의 북한 재해지역 모니터링 활동은 지원 식량의 배분 실태, 재해 복구 실태, 향후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 추진 실태 등 재해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유실되거나 파괴된 주택 신축과 보수에 관해서는, 재해 지역에 1만 1,928채의 주택이 새로 건축되었고 1만 7,698채의 주택이 보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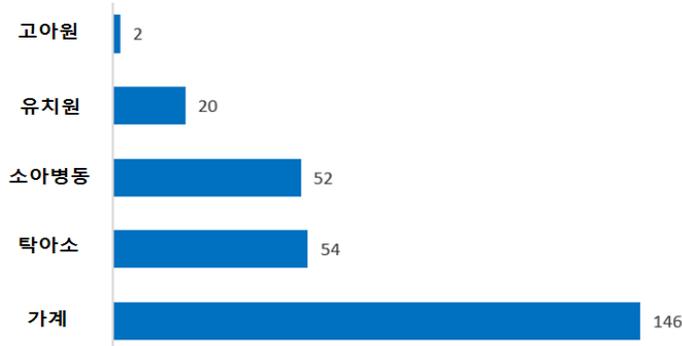
한편 WFP는 2016년 9월에 재해지역 현장 평가를 마치고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식량사업(FDRR)' 기획안 2건을 채택한 바 있는데,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양강도 삼지연군의 제방 복구사업이었으며 다른 사업은 평안남도 성천군의 경사지 녹화복구사업과 임농복합영농 지원사업이었다. 이 두 사업은 2016년 10~11월에 시행되어 12월에 완료되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이 두 사업에 총 7,467명이 참여하여 280ha의 경사지에 280만 주의 식목을 하고 1.6km의 제방을 복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 시작 시점인 2016년 10월에 참가자에게 식량 105톤을 1차로 제공했으며, 2017년 1월에 최종 배급량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식량지원으로 총 2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WFP는 콩과 기름을 추가로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단백질과 지방도 제공하였다.

## 5 모니터링 활동

WFP 현장 모니터링은 총 62개 지역에 분포한 고아원, 유치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302개소를 방문하며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부와 수유부가 있는 146가구, 아동기관 104개소, 소아병동 52개소를 방문해 모니터링하였으며(그림 4), 개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2016년 4분기 현장 방문 모니터링



**소아병동:** 2016년 4분기 WFP 모니터팀은 소아병동 52개소를 방문했다.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폐렴, 독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어린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으며, 병원과 소아병동의 난방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탁아소와 유치원:** 탁아소 61개소와 유치원 42개소를 방문했다. 방문했던 기관들의 물 부족과 수질 악화가 우려할 수준이다.

**기숙학교 및 고아원:** WFP 직원은 기숙학교 및 고아원 2개소를 방문했으며, 새로운 학사가 건설 중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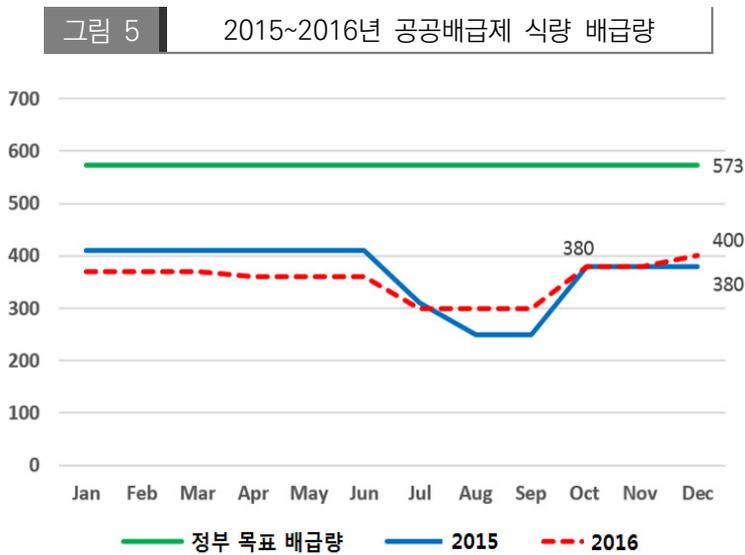
**임신부와 수유부 가구:** 146가구 방문 결과, 주민들은 대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적으로 섭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6 식량안보 상황

여러 도(道)의 공무원들은 함경북도 수해지역을 제외하면, 2016년의 주작물(특히 쌀) 작황이 양호하여 2015년 상황에 비해 나아졌다고 밝혔다. 2016년 수확량이 증가한 이유는 양

호한 기상과 비교적 충분한 비료 공급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방문한 3개 군 중 2개 군에서 작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2016년 주작물 수확량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 그러나 양강도에서는 감자 수확량이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자 생육에 중요한 시기인 8~9월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2016년 10~11월 기간 동안 북한의 공공 식량배급량은 1인당 하루 380g이었으며 12월에는 400g(1일 칼로리 필요량의 약 69%)으로 약간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의 배급량에 비해 상승한 것이지만, 정부의 1인당 하루 배급 목표량인 573g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그림 5).<sup>2)</sup> 방문한 군 지역 중 일부에서는 식량배급소가 주민의 거주지와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져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7 장기 구호복구사업 200907호의 자금 현황

‘장기 구호복구사업(PRRO) 200907(2016.7~2018.12)호’의 전체 사업 소요액은 약 1억 2,590만 달러이다. 2016년 4분기까지 받은 기부액은 전체 사업 소요액의 15.3%인 1,920만 달러이며, 부족액은 전체 사업 소요액의 84.7%인 1억 660만 달러이다(표 1).

이 사업의 올해 부분만 보더라도 3,07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금(2016

2) 대개 10월의 식량 공공배급은 조기 수확 작물(밀, 보리, 감자)로 구성되며, 11~12월의 식량 배급은 주 수확 작물인 옥수수과 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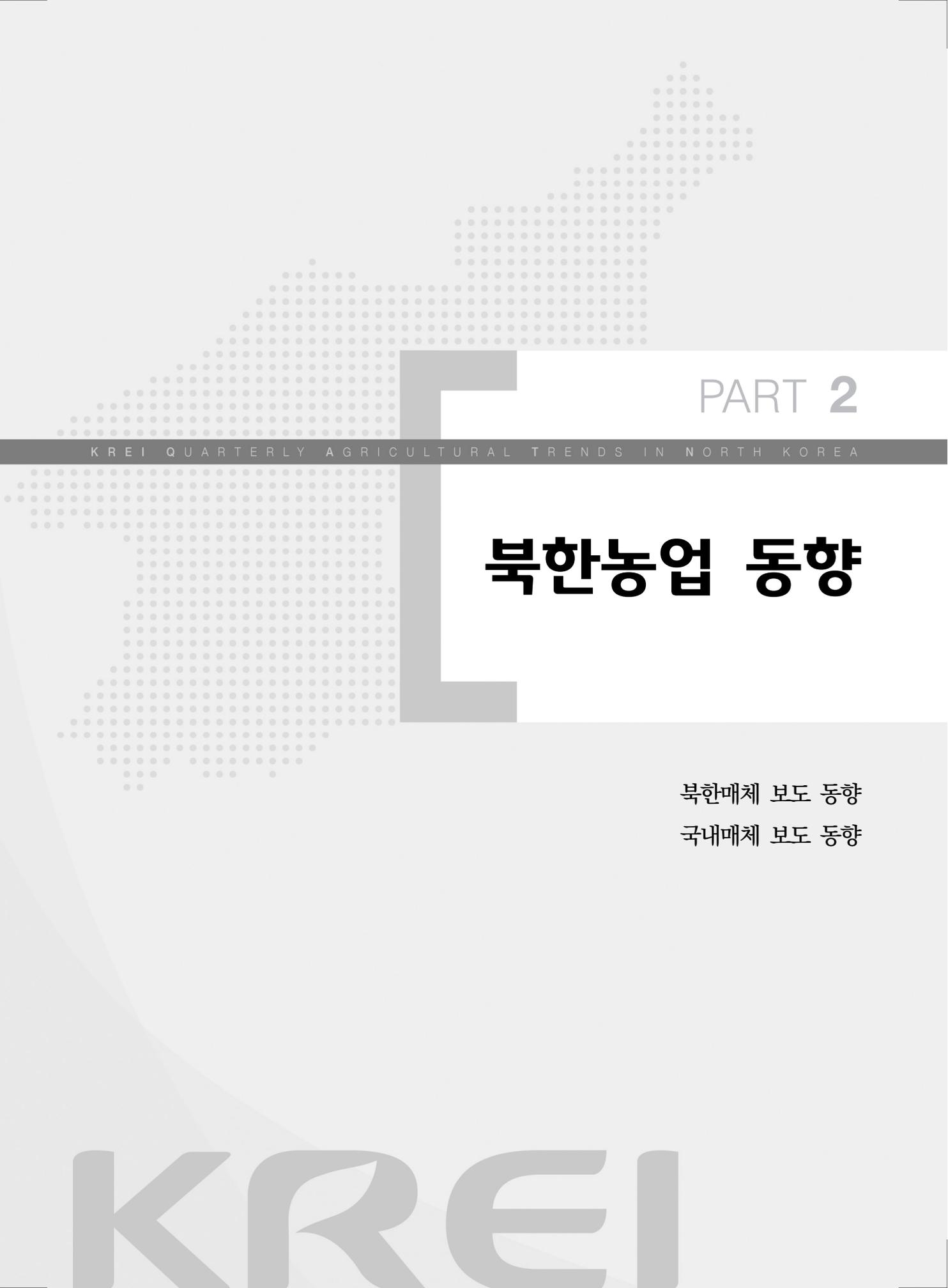
년 12월 현재) 즉시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2017년 4월 말에 중단될 것이라고 WFP는 전망한 바 있다.<sup>3)</sup>

표 1 장기 구호복구사업(PRRO) 200907의 사업 소요액 및 부족액

내 용	금 액 (천 달러)	비 중 (%)
전체 사업 소요액	125,863	100.0
- 2016년 4분기까지 받은 기부액	19,295	15.3
- 부족액	106,568	84.7

3) 실제로 2017년 3월에 북한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영양비스킷 지원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뉴스1. 2017.03.28. "WFP, 北어린이 19만명에 영양지원 중단...모금부족 탓").





PART 2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 KREI



# 북한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1 농업정책

### ◆ 박봉주 총리의 현지이해

박봉주 총리의 황해남도 농사 실태 현지이해(로동신문 2016.10.12.)

- 박봉주 총리는 황해남도 연안군과 배천군의 농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일꾼과 농업 근로자를 독려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는 곡물 수확량 증가와 탈곡 작업의 능률 향상 문제가 토의되었음. 총리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능률 높은 농기계 도입을 강조하고 수확과 탈곡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음.

박봉주 총리의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 현지료해(로동신문 2016.10.19.)

- 박봉주 총리는 회령시, 연사군, 무산군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였음.
  - 총리는 복구 현장을 돌아보며 노동자와 일꾼을 격려했음.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북부 피해 지역 건설 복구를 완수하기 위한 실무 대책이 토의되었음.
  - 총리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 청진항을 돌아보면서 북부 전역에 보내줄 철강재 생산을 늘리고, 시멘트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 수송에 힘을 쏟으라고 강조하였음.

## 2 농림축산업

### ◆ 농업

고산과수종합농장의 꺾기 대회 개최(로동신문 2016.10.01.)

- 2016년 9월 30일, 고산과수종합농장 종업원과 618건설돌격대원은 꺾기 대회를 개최하였음.
  - 꺾기 대회에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북한 표준 농장으로 성장시키고 과일 생산에서 매년 최고 실적을 기록하자고 주장하였음. 또한 농장에 돼지 목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여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자고 강조하였음.
  - 대회 참가자는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건설에 집중하여 종업원의 주택난을 해결하자고 강조하였음.

가을 수확 적기를 바로 선정하고 - 운전벌에서(로동신문 2016.10.02.)

- 운전벌 협동농장에서는 논의 특성에 맞게 수확 적기를 선정하였음.
  - 해당 농장은 모내기 시기, 성장촉진제 분무량, 논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확 시기를 선정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미생물발효법으로 큰 단백질 재배 - 원산시(로동신문 2016.10.05.)

- 원산시 청년축산작업반은 태양열 온실에서 큰 단백질을 재배하였음.
  - 농업 근로자는 온실 열원을 석탄이 아닌 미생물발효법으로 대체하였음.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벚겨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였음. 근로자는 온실 바닥을 1m 정도 파내고 70~80cm의 두께로 토착 미생물로 처리한 벚겨를 넣어 열을 발생시켰음.
  - 그 결과, 석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겨울철 가축의 비곡물 사료 비중을 높였고 곡물 소비량을 줄일 수 있었음.

감자 수확 마감 단계 - 양강도에서(로동신문 2016.10.12.)

- 양강도에서 감자 수확이 마감 단계임.
  - 양강도는 대부분의 지역의 지대가 높아 서리가 일찍 내려 감자 수확 시기를 앞당겨야 함.
  - 삼지연군의 보서농장 일꾼은 예상 수확고를 추측한 후 감자 수확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대흥단군에서는 트랙터 부속품 충분히 생산하여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

농촌 지원의 열풍을 세차게(로동신문 2016.10.14.)

- 단천시 장내리초급여맹위원회에서 농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초급여맹위원회 일꾼은 짧은 기간에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공급하였음. 위원회 일꾼은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냈음.

과학적인 적기 선정으로 잦은 증산 예비 - 신천군 우룡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0.15.)

-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은 벼의 추수 적기를 과학적으로 정해 2015년보다 200~300kg 많이 수확하였음.
  - 2015년에 적기보다 일찍 수확 한 벼는 여물지 못하여 소출이 떨어졌고 품질도 낮았음. 반면 늦게 수확 한 작업반의 벼는 땅에 떨어지거나 짐승 피해를 받았음.
  - 농장 일꾼은 벼의 형태학적 특징, 벼의 수분 함량, 이삭이 팬 후 여무는 기간을 조사하여 수확 적기를 선정하고 벼를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었음.

낱알 허실을 막을 수 있게 - 문덕군 상팔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0.15.)

- 2015년 문덕군 상팔협동농장은 벧단을 여러 번 옮겼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낱알이 허실되었음. 벧단을 한번 옮길 때 벼 이삭 하나에서 낱알 하나가 허실된다고 가정하면 정보당 50kg의 쌀이 손실될 수 있음.
- 농장 일꾼은 쌀 손실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벧단 옮기는 횟수를 줄이고 탈곡 작업을 빨리 마쳤음.

탈곡 실적을 높인 비결 - 철산군 수부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0.15.)

- 철산군 수부협동농장은 계획보다 1.2배 많은 벼를 탈곡하였음.
  - 농장 일꾼은 벼종합탈곡기의 성능을 개선하여 탈곡 작업 속도를 높였음. 개조된 탈곡기를 사용하여 탈곡 속도와 정선(精選)율을 개선시켰음.

탈곡에서 최고 기록 돌파 - 서해지구의 농촌에서(로동신문 2016.10.2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북도 등 서해지구 농촌은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의 탈곡 실적을 기록하였음.
  - 황해남도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배천군, 재령군, 신천군 등의 농촌은 벼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를 이용하여 탈곡 작업을 진행하였음.
  - 평양시의 농업 근로자는 교대 작업조를 조직하여 작업 능률을 높였고 전년 대비 약 5배 이상 탈곡 실적을 기록하였음.
  - 평안남도의 농촌은 농산 작업의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종합수확기를 마련하였음. 숙천, 문덕군은 벼종합수확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공의 책임감을 높였고 탈곡 작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음.

선동원의 역할과 추수 실적 - 고원군 군내리당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6.10.22.)

- 고원군 군내리당위원회는 선동원을 농장에 파견하여 추수와 탈곡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선동원은 대중 곁에서 정부 정책 관철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른 작업반의 선동원은 선동원의 날을 활용하여 영농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농장의 추수 및 탈곡 작업을 예전에 비해 앞당겨 끝냈음.

호평 받는 소형벼수확기 - 염주군 향봉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0.22.)

- 염주군 향봉농장에서 창안·제작한 원격조종소형벼수확기가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 회의에서 참가자의 관심을 받았음. 해당 농기계의 작업공정은 원격 조종에 의하여 진행되며 여러 장점이 있음.
  - 원격조종소형벼수확기는 수확 장치, 주행 장치, 원격 조종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작업 상태는 감시 카메라와 송수신 장치에 의해 감시 화면에 나타나며 조종자는 작업 상태를 확인하여 벼수확기의 전진 방향과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음.
  - 수확기 동력은 태양광 전지판에 의해 충전된 축전지를 이용하고 벼수확기에 분무기를 연결하여 농약 분무에 사용할 수 있음. 벼수확기는 시간당 200평의 논을 벼를 수확하여 5명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음.

크게 효과를 내는 벼단상차기 - 은파군 강안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0.22.)

- 강안협동농자 작업반원은 벼단상차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낱알 허실을 막고 있음. 일반적으로 벼단을 옮길 때 많은 낱알이 떨어져 정보당 백여 kg의 허실이 생김.
  - 농장의 작업반원은 낱알 허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벼단상차기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였음. 새롭게 제작된 상차기는 휘발유를 적게 사용하며 벼단을 옮길 때 드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음.
- 강안협동농장은 벼단 운반을 기계화하여 낱알 허실을 줄여 영농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추수 작업에 고무 추동 -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6.10.23.)

- 황해북도당위원회는 일꾼과 농업 근로자를 독려하여 추수 및 탈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 일꾼은 추수 및 탈곡 작업이 진행 중인 농촌에 파견되어 농업 근로자를 독려했음. 서흥군 시, 군의 일꾼도 농업 근로자가 추수 작업에 집중하도록 독려했음.

능률 높은 이동식소형벼탈곡기(로동신문 2016.10.23.)

- 신계군에서 진행된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 수십 점의 탈곡기가 출품되었고 참관자의 관심을 받았다. 심사관은 탈곡기의 구조와 동작 원리, 경제적 효과성을 검토하고 운영 시험을 진행하여 실질 운영 능력을 판정하였다.
- 박천군 기송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반장이 창안한 이동식소형벼탈곡기가 최우수로 평가되었음.
  - 이동식소형벼탈곡기는 시간당 능률이 높은 노동력 절약형 농기계로 시간당 탈곡량은 수백 kg이며 동력 소비가 적음.
  - 이동식소형벼탈곡기는 송풍기를 이용하여 검불을 제거하는 기존의 탈곡기와 달리 배풍기를 이용하여 검불을 제거하므로 동력 소비를 절약할 수 있음.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할 때 자재가 적게 사용되며 무게가 가벼워 손수레만 있으면 필요한 장소로 운반할 수 있음.

동해지구 농사에서 장훈을 부른 비결 -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통천군 읍협동농장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6.10.30.)

- 통천군 읍협동농장은 올해 냉해 피해가 많았으나 벼 정보당 수확량은 전년 대비 약 1.5 톤 증가하였음.
  -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냉해 예방을 위하여 씨앗을 고르고 모기르기에 주력하였음.
  - 농장은 5월 중순 이후에 모내기를 시작하여 냉해 피해를 예방하였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을 선택하였음. 또한 모판 온도를 높이고 벼모에 후민산 비료, 썩 우림액, 버드나무 우림액 등을 주었음.

옥수수 종자 가공에서 연일 혁신 - 황해남도 옥수수 종자 가공 공장에서(로동신문 2016.11.03.)

- 황해남도옥수수종자가공공장 일꾼과 종업원이 20여 일 동안 수백 톤의 옥수수 종자를 가공하였음.
  - 농촌경리위원회 일꾼은 수송 계획을 수립하여 종자를 제때 운반하여 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옥수수 종자 보관 및 관리를 기술적으로 하였음. 가공 공장은 매일 생산 계획을 2배 이상 초과 수행하고 있음.

서해지구의 농촌에서 탈곡 진행(로동신문 2016.11.05.)

- 서해지구의 많은 농촌이 탈곡을 끝냈음.
  - 서해지구 농촌은 트랙터와 탈곡기 수리 정비, 중소 농기구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년 대비 1.5배 많은 양의 벼를 탈곡하였음.

- 평양시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탈곡 작업을 마쳤음.
- 황해북도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기술적 지도를 통해 벧단 운반과 탈곡 작업을 진행하였음. 2016년 11월 5월 기준, 황해북도의 운산, 태천, 대관군 등 10여 개 시, 군의 농장을 포함한 270개 이상의 농장에서 탈곡 작업이 끝났음.

탈곡 속도를 높이게 한 조직 정치 사업 - 온천군 운하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1.06.)

- 온천군 운하협동농장에서는 탈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배 이상 실적을 기록하였음.
- 2016년 농사 작황이 좋아 탈곡해야 할 곡물의 양이 매우 많았고 협동농장은 탈곡기를 계속 가동해야 탈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농장은 탈곡기 예비 부품품 충분히 마련하여 탈곡기 고장에 대비하였고 모든 작업반은 탈곡기 수리에 필요한 용접기와 소형 연마기 등을 갖추어 놓았음.

백수십 톤의 피마자씨 생산(로동신문 2016.11.14.)

- 2016년 북한 전국의 여맹 일꾼과 여맹원은 백수십 톤의 피마자씨를 생산하여 중요 공업 부문에 보내주었음.
- 평안북도여맹위원회는 영양단지모에 피마자를 심는 등 생육 상태에 따른 선진적 재배 방법을 도입하여 생산 계획을 177% 달성하였음.
- 함경남도 북청군, 자강도 우시군의 여맹원은 강하천과 마을, 공공건물 주변 비경지에 피마자를 심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소출을 냈음.

과학 농사, 기술 농사가 안아 온 훌륭한 결실 - 문덕군에서(로동신문 2016.11.24.)

- 문덕군 용림협동농장 등 여러 농장은 영농 기술을 혁신하여 정보당 벼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음.
- 농장은 농업과학고 농업화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김매기 기술을 개선하였으며 정보당 알곡 생산량을 1.5~3톤 이상 늘렸음.
- 특히 용림협동농장 제4작업반은 논갈이, 씨레질, 살초제를 활용하여 김매기 효과를 높였음. 또한 동림협동농장 제3작업반 농업 근로자는 살초제를 치면 씨앗에서 싹이 트지 못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모판 김매기율을 95% 이상 보장시켰음.

다음 해 농사 준비 적극 추진 -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6.11.30.)

○ 황해북도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다음 해 농사 준비에 노력하고 있음.

- 황해북도는 2016년 농사 경험에 기초하여 추수와 함께 논밭에 퇴적장을 만들고 질 좋은 생물 활성 퇴비를 생산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를 끝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황주군의 일꾼은 밭에 짚을 자르는 설비를 설치하여, 옥수수 대를 썰고 옥수수 뿌리와 섞어 균 처리를 한 다음 소식회를 뿌려 생물활성퇴비의 질을 높였음.

알곡 증수를 담보하는 품종 배치 - 영광군에서(로동신문 2016.12.10.)

○ 영광군은 알곡 증수를 목표로 품종 배치에 힘을 쏟았음. 영광군 일꾼은 2017년에 만생종 벼 우량 품종을 도입하여 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2016년에 동해 연안에 위치한 영광군과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새해지구 농촌은 만생종 벼를 도입하여 많은 쌀을 생산하였음.

효과를 내게 될 농기계들 - 자동조종다기능종자피복기(로동신문 2016.12.10.)

○ 봉천군 대야농장의 일꾼은 2017년도 농사에 벼, 옥수수를 비롯한 모든 종자를 피복할 수 있는 자동조종다기능종자피복기를 도입할 계획임.

- 원산농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가 자동조종다기능종자피복기를 개발 및 제작·완성하였음.
- 개발된 피복기는 종자를 피복하여 직파하기 때문에 노동력, 종자, 비닐 박막 등을 절약할 수 있음. 또한 피복제에 포함된 영양 성분과 농약의 영향으로 종자는 냉해 및 가뭄에 강해지며,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아 초기 생육이 왕성해짐.

가을갈이 성과 확대(로동신문 2016.12.10.)

○ 봉산군 청계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이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를 끝내기 위해 가을갈이 작업을 하고 있음.

- 농장은 포전별 가을갈이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트랙터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필요한 부속품을 적기에 보장해주고 있음.
- 모든 작업반들이 가을갈이를 계획대로 진행해나가고 있으며, 제2작업반은 트랙터와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여 가을갈이를 가장 먼저 끝냈음.

삼지연군 감자밭 객토에 역량을 총집중 - 양강도에서(로동신문 2016.12.12.)

○ 도당위원회는 수백 정보의 감자 밭에서 객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 및 근로자는 윤전 기재를 총동원하였음. 양강도 공공 기관의 일꾼은 삼지연군의 여러 농장에 파견되어 연유 공급과 윤전 기재 배치, 총화 등을 진행하였음.

그림 1 삼지연군의 감자밭 객토



자료: 로동신문 2016.12.12.

과학 농사로 담보한 알곡 증산(로동신문 2016.12.23.)

- 2016년, 배천군은 최고 수확 년도에 비해 수천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하였음.
  - 배천군에 파견된 황해남도 농업 부문 과학자는 과학기술과 농업 생산을 연계하는 것을 중시하고 선진 영농 기술은 농장에 전파하였음.
  - 농장은 과학자의 지시에 따라 수증형 품종을 도입하고 도입한 품종에 적합한 비배 관리를 진행하였음. 또한 영양단지모를 소식 재배 방법으로 내고 농사를 지어 최고 수확 연도보다 7,000여 톤 많이 쌀을 생산하였음.
  - 김제원해주농업대학 작물재배연구소는 비색계를 활용하여 흙보산 비료에 함유된 후민산 함량을 측정하여 흙보산 비료의 품질을 높였음.

## ◆ 임업

통나무 생산에서 최고 실적 기록(로동신문 2016.10.03.)

- 2016년 9월 기준 화평림산사업소의 일꾼과 노동자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통나무 마감 나르기 계획을 완료하였음.

- 일꾼은 연간 마감 나르기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더 많은 통나무를 싣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7개의 다리를 보수하여 운송차량 통행로를 넓혔음. 사업소에서 하루 최고 150여 m<sup>3</sup>의 통나무를 철도역으로 운송하였음.

실정에 맞는 나무모 생산 방법 도입 - 신계군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6.10.04.)

- 신계군산림경영소 일꾼과 종업원은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특히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 등 침엽수 묘목 생산을 2015년보다 1.5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산림경영소는 2015년에도 나무모 생산 계획을 수행하였으나 땅속 해충때문에 침엽수 묘목 생산 성과가 좋지 못하였음.
  - 산림경영소는 해충 예방을 위하여 묘목 발 사이에 들깨 작물을 심었음. 들깨 작물을 이용한 해충 예방 작업으로 인해 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어졌음. 씨를 뿌린 나무모의 활착률이 100%에 가깝게 도달하였고 토양소독제를 절약할 수 있었음.

최고 생산 연도 수준 돌파 - 121호림업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6.10.22.)

- 121호림업연합기업소의 노동자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연합기업소는 통나무 벌목, 중간운재, 물길에 의한 마감 운반 등 모든 지표에 걸쳐 200일 전투 계획을 2개월 앞당겨 완수하여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였음.
  - 자서림산사업소는 연초에 이미 생산해놓은 통나무를 산판에서 편별장까지 수송하였고 200일 전투 때물이 계획을 가장 먼저 마쳤음.

산림 복구를 위한 물질적 토대 마련 - 남포시에서(로동신문 2016.11.02.)

- 남포시의 일꾼, 당원, 근로자는 산림 복구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 구역, 군산림경영소를 개선하였음.
  - 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일꾼은 각 구역, 군에서 모체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 생산 계획을 수립하였음.
  - 모체 양묘장에는 질석 소성로가 건설되고 전력 공급 체계와 자연흐름식 관수 체계가 만들어졌고 산림경영소에 과학기술보급실이 건설되었음. 또한 질석 채취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질석 채취량을 늘렸음.
  - 시의 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일꾼은 유실수를 중심으로 나무 종자를 확보하고 산불 감시 및 방지 대책을 세웠음.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하여 - 신의주시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6.11.02.)

- 신의주시산림경영소 일꾼과 종업원들은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하여 전년 대비 2배 많은 83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산림경영소는 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회전분무식원형삼목장과 겨울철에도 나무모를 재배할 수 있는 나무모 온실을 건설하였음. 또한 1정보의 야외 재배장과 7정보의 모체 양묘장을 꾸렸음.
  - 2016년 봄, 산림경영소 일꾼은 앞선 나무모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34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여 신의주시 산림에 옮겨 심었음. 경영소는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개발한 활착 촉진제를 도입하여 나무모 생산을 증대시켰음.

전국적으로 천수백 톤의 종자 채취(로동신문 2016.11.08.)

- 각지 일꾼과 근로자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천수백 톤의 종자를 채취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1.4배 높은 실적임.
  - 2016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종이 좋은 나무 종자를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평안남도과 양강도 등은 나무 종자 채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음.

## ◆ 축산업

과학 기술로 해결한 사료 부족 문제 - 정주시 석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로동신문 2016.10.05.)

- 북한 정주시 석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음.
  - 작업반은 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매년 약 1,000마리의 새끼 돼지를 생산하여 농장원 세대와 작업반 비육 분조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 작업반은 낡은 돼지우리를 철거하고 사료 소비량을 줄이는 원칙을 세우고 돼지우리를 새로 건설하였음.
  - 돼지우리 한 벽면에 창문을 내서 태양열에 우리 온도를 높였음. 돼지우리는 겨울철에도 10℃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 돼지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료 소비량도 줄었음.
- 작업반은 매 우리의 절반 면적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토착 미생물로 처리한 북데기나 풀을 채워 넣었음.
  - 돼지는 발효된 풀을 파서 뒤집어 먹었고 사료가 절약되었음. 토착 미생물을 이용하니 돼지

우리의 악취와 유해 곤충도 없어졌음.

- 작업반은 영양가 높은 먹이풀을 재배하여 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음.
  - 일꾼은 먹이풀과 적은 양의 알곡 부산물 등을 복합 균으로 처리하여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였음. 복합 균으로 처리된 사료는 돼지의 증체율을 높였으며 알곡 사료 소비량도 절반으로 낮추었음.

## ◆ 기타 작물

누에고치 증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동신문 2016.10.15.)

- 누에고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서는 뽕밭 가꾸기와 양잠을 과학적으로 해야 함. 우선 뽕밭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하며, 뽕밭 가꾸기에서 중요한 것은 뽕나무모 생산을 늘리는 것임.
  - 점묘, 분생묘, 가지모 기르기 방법 등 농장의 실정에 맞는 모 기르기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함.
  - 경지 면적이 제한된 북한에서 묘목을 증산하기 위하여서는 뽕나무를 밀식해야 함. 산간지대에는 정보당 뽕나무 1만 5,000그루 이상, 중간지대에는 2만 그루 이상, 별방지대에는 2만 5,000그루 이상 심어야 함.
-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뽕나무갈반병을 등 각종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함. 이를 위하여 봄에 떨어진 잎, 해묵은 풀, 병든 가지와 얼어 죽은 가지를 모아 불태워야 함.
  - 또한 소독약을 적극 이용하며 해충이 겨울나기에 들어가기 전에 뽕밭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함.
- 양잠을 과학적으로 해야 함.
  - 뽕잎 생산량을 미리 타산한 후 기를 누에 양을 결정해야 함. 누에알을 받아오기 7일 전에 부화실 등 모든 시설을 소독하고, 알을 받아오기 3일 전에 2차 소독을 해야 함.
- 부화한 누에를 잘 관리해야 함.
  - 1살부터 3살까지를 어린 누에시기라고 하며 이 시기에 먹이주기, 잠자기, 잠깨기 등을 과학적으로 하여 누에를 충실히 키워야 함.
  - 누에가 가설막으로 나가기 7일 전에 가설막을 짓고 소독하며 3일 전에 2차 소독을 해야 함. 가설막 바닥에 벗겨 또는 톱밥을 깔아주어야 함.

- 누에가 가설막에 나와 자라는 시기를 큰 누에시기라고 함. 이 시기에 30℃ 이상의 높은 온도, 장마에 의한 습기 피해를 예방해야 함.

○ 다 자란 누에가 고치를 만들 자리를 마련해야 함.

- 누에가 고치를 만들 자리를 마련하고 일주일 후에 고치따기를 진행함. 수확한 고치는 즉시 비닐박막을 펴고 햇빛에 4~6시간 1차 건조한 후 건조장에 보내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제사 공장으로 보내야 함.

누에치기 소독약의 국산화 실현 - 자강도에서(로동신문 2016.11.07.)

○ 자강도는 북한의 기술과 자재로 누에치기 소독약을 연구 개발하여 누에고치 생산을 늘렸음. 도당위원회는 강계의학대학에 북한식의 소독약 생산 방법 연구를 위탁하였음.

- 연구사들은 장강잡기구공장에 실험실을 꾸리고 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로 새로운 소독약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음.
- 연구사들은 소금물 전기 분해법에 의한 소독약 생산 공정을 파악하여 소독약 생산 방법을 3년 동안 연구 완성할 목표를 내세웠음. 연구사들은 배전반, 전해조, 교반기, 탈수기 등 10여 개의 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소독약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음.

### 3 농업기반 및 농자재

#### ◆ 토지 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트랙터 계열 생산 준비 적극 추진 - 금성트랙터공장에서(로동신문 2016.10.12.)

○ 금성트랙터공장은 기존의 80hp 트랙터보다 성능이 우월한 트랙터를 생산하여 시운전을 진행하였음.

- 공장은 새로운 트랙터 계열 생산을 위한 수천 종의 장비 설계 작업을 진행 중임.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는 짧은 기간에 많은 모형을 제작하고 모형, 주물, 제관, 변속기, 치차 등 7,000여 개의 부속품을 가공하였음.

백암군 덕포지구 토지 개량 사업 활발 - 양강도에서(로동신문 2016.11.18.)

○ 백암군 덕포지구에서는 당원과 근로자, 군부대원을 동원되어 객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중장비 운전공과 자동차 운전사는 운전 기재 수리 점검을 자체로 진행하며 객토 작업을 돕고 있음.

## ◆ 물길 공사, 저수지, 물 보장

하천 정리 공사를 질적으로 - 대동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6.11.13.)

-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대동군 일꾼과 근로자는 약 13만 m<sup>2</sup>의 토량을 처리하고 약 30km 구간에 대한 하천 정리를 완료하였음.
  - 군 일꾼은 폭우에 대비하여 2개의 수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최대 물 높이를 기존보다 50cm 낮추어 제방의 안전성을 보장하였음.

강하천 정리 작업 본격적으로 추진 - 무산군에서(로동신문 2016.11.18.)

- 무산군은 강하천 정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음. 무산군 읍제방, 칠성리제방, 지초리제방, 화평제방, 서호제방, 새마을호안공사에 파견된 군인과 각지 돌격대원은 약 10km에 달하는 강하천을 정리하였음.
  - 무산군 강하천 정리 공사는 수십만 m<sup>2</sup>의 성토 작업과 10여만 m<sup>2</sup>의 막돌 채취 작업을 동반하는 큰 과제임.
  - 군부대는 삽차, 대형 자동차 등 비롯한 건설 장비 및 운수 기재를 보장하여 2만 5,000여 m<sup>2</sup>의 성토 작업과 제방 쌓기를 진행하고 있음.
  - 여명거리건설돌격대는 칠성리제방의 1.3km 구간에 대한 정리 작업에서 4만 8,000여 m<sup>2</sup>의 성토 작업을 마치고, 전체 막돌 채취량의 70%를 완수하였음.
  - 618건설돌격대의 전투원은 화평제방의 1.2km 구간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2만 5,000m<sup>2</sup>의 토량을 처리하였음.

새로운 대동강 유역 홍수관리체계 완성(로동신문 2016.12.06.)

- 육해운성 대동강감문관리국과 여러 단위 일꾼, 기술자, 연구사가 새로운 대동강 유역 홍수관리체계를 완성하였음.
  - 해당 부문과 여러 단위 일꾼, 기술자, 연구사는 2016년 9월까지 수십 차례의 현장 시험을 진행하면서 홍수관리체계를 완성하였음.
  - 새롭게 완성된 대동강유역홍수관리체계에 따라 대동강 감문, 발전소의 연계 수위 및 유역의 강우량 등 수문 자료가 국가망과 이동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지휘부에 전송됨.
  - 지휘부는 실시간 자료를 토대로 홍수를 예측하고 조절 방안을 선택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음.

## ◆ 기름, 비료, 농약

남조류 생물 활성 퇴비 생산에 힘을 넣어 - 문덕군에서(로동신문 2016.12.10.)

- 문덕군 용반협동농장은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협동농장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조류 생물 활성 퇴비를 적극 생산하고 있음. 생물 활성 퇴비는 유기질 비료에 비해 지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정보당 0.5~1.5톤의 추가 소출을 낼 수 있음.
  - 농장은 2017년에 모든 논과 밭에 남조류 생물 활성 퇴비를 뿌릴 목표를 세우고 벧짚과 북데기, 소석회를 이용하여 생물 활성 퇴비를 증산할 계획임.

큰 성과를 내게 될 농기계들 - 호평 받는 미립 분무기(로동신문 2016.12.10.)

- 강서분무기공장의 일꾼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연구 개발한 배낭식 미립 분무기가 농촌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배낭식 미립 분무기로 벼를 비롯한 곡식의 엽면산포를 하여 큰 효과를 보았음.
  - 배낭식 미립 분무기는 분무되는 물방울의 크기가 미세하고 균일하기 때문에 30리터의 물로 한 정보의 논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음.

그림 2 남흥화학기업소의 비료 생산



자료: 로동신문 2016.12.28.

알곡 증산에서 성과를 낸 알비료성형기 - 문덕군 용림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12.28.)

-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 회의에 출품되었던 알비료성형기는 깊은 층 시비를 보다 손쉽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알비료를 생산하는 기계임.
- 문덕군 용림협동농장은 몇 해 전부터 가루비료를 알비료로 성형하여 깊은 층 비료주기를 해왔음. 깊은 층 비료주기는 비료의 손실을 막고 효과를 높여 쌀 생산을 늘리는 방법임.
  - 농장이 도입한 알비료성형기의 비료 생산량은 기존 성형기의 생산량에 비해 7.2배 많으며 전력 소비량은 1/3 수준임. 농장은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쌀 생산을 늘렸음.

## 4 기타 동향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주년 국제학술토론회 진행(로동신문 2016.10.01.)

-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주년 국제학술토론회가 2016년 9월 29, 30일에 진행되었음.
  - 《과학 발전과 사회적 진보》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인류의 사회적 진보에 이바지할 수 백 건의 과학기술 논문이 발표되었음.
  - 개막식에는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 대학의 일군, 교원, 연구원, 세계 각국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음. 주(駐)북한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구성원도 토론회에 초대되었음.
  - 토론회는 사회정치학, 경제 및 금융학, 문학, 역사학, 언어학, 수학, 물리학, 생명 및 환경 과학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음.
  -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표적 논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문명강국건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병진로선이 가지는 역사적인 중요성과 경제적 혜택》,《수학적 방법을 이용한 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 설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성을 형상한 시가문학의 특징》,《김일성민족의 100년사가 확증해준 철의 진리》,《청암동토성에서 발굴된 고구려건축지와 건물벽화》,《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우리말의 우수성》,《곡면 및 녹골에서 증기의 평면응축》,《반환에서 열기합동관계》,《퇴킴우주 모형에서 암흑물질의 형성에 대한 연구》,《대장균피타제유전자의 클론화와 발현, 효소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건강에 좋은 옥수수 꽃가루 영양액에 대한 연구》 등

사과 맛 품평회 진행(로동신문 2016.10.06.)

- 2016년 10월 4일 평양에서 각지 과수 농장에서 생산한 사과의 품평회가 진행되었음. 품평회에서는 북한의 각지 과수 농장이 출품한 20여 종의 사과를 대상으로 단맛과 신맛, 향기, 수분 등을 기준으로 심사·평가하였음.

학교와 유치원 등 공공건물 건설 적극 추진 -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에서(로동신문 2016.10.16.)

-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의 장병이 회령시의 공공건물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 착공 후 보름 동안 연건평이 6,000㎡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학교와 유치원, 진료소의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음. 현재는 내외부 미장 공사, 지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9월, 김정일은 북부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 작업에서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등 공공건물 건설에 중점을 두라고 말하였음.

- 예술선전대, 방송선전차를 등 모든 선전·선동 인력과 수단이 총동원되어 공공건물 건설 사업에 투입되었음. 부대의 모든 장비는 공공건물의 내외부 미장과 주변 정리 등 담당 업무를 10월 말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음.

2016년 세계 식량의 날 토론회 진행(로동신문 2016.10.18.)

- 2016년 10월 1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2016년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음.
  - 농업성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일꾼과 주(駐)북한 세계식량계획 대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부대표 등 국제기구 대표, 각국 외교관 및 대사관이 토론회에 참여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연설이 진행되었음.
  - 연설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한 식량 및 농업의 적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가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식량 안전 보장 대책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연설자는 북한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음. 또한 북한이 식량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어 《농업에서의 기후변화적용》,《농업부문 재해위험감소에 대하여》,《식량안전과 어린이영양관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있었음. 토론자들은 북한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 및 농업 부문 대처 방안을 해설하였음.

제3차 전국 버섯 생산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기술 강습 진행(로동신문 2016.10.22.)

- 2016년 10월 20일 사리원시에서 제3차 전국 버섯 생산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기술 강습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하여 개최되었음.
  - 국가과학고 중앙버섯연구소와 김일성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전국 각지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현장 일꾼 및 버섯 재배공이 참가하였음.
  - 북한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버섯 품종과 대용 기질 원료 개발을, 버섯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80여 건의 논문이 발표회에 제출되었음. 《바늘잎나무톱밥에 의한 버섯재배기술》,《반궁릉식온실에서의 고리형순환식 버섯생산》,《버섯생산에서 생물활성복합제의 이용》,《물리적 방법에 의한 버섯병해충구제방법》등 많은 논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또한 버섯 종류에 따른 재배 기술, 버섯 피해 잡균 대책, 지역적 특성에 맞는 버섯 재배용 대용 원료 개발 등에 대한 기술 강습이 있었음.

러시아 대사관, 고창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 노동(로동신문 2016.10.26.)

- 2016년 10월 25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고창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 노동 작업을 하고 농장에 지원 물자를 전달하였음.
  - 대사관 직원은 북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서 농업 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듣고 농장원의 일손을 도왔음.
  -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북한 농촌에 현대식 주택이 건설되어 농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하였음.

전국 학생 및 청소년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 진행(로동신문 2016.10.28.)

- 2016년 10월 27일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교급중학교에서 전국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과 학생 및 청소년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가 진행되었음.
  - 각지 학생 및 청소년은 품평회에 새 품종 토끼와 북한 기후 풍토에 맞는 토끼를 출품하였음. 토론자는 경험 토론회에서 번식률이 빠르고 기르기 쉬우며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토끼 품종을 선택하고 사양 관리 방법과 수의 방역 사업을 개선한 것에 대해 말하였음.
  - 학교가 실정에 맞게 제조한 예방약, 치료약을 이용하여 토끼 질병을 예방하고 토끼 고기와 털가죽 생산을 늘린 성과와 경험 자료가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음.

전국산림기계전시회 진행(로동신문 2016.11.02.)

- 201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전국산림기계전시회가 진행되었음.
  - 국토환경보호성, 임업성, 각지 산림 기계 연구 및 제조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였음.
  - 나무모 뜨는 기계, 재배기질 생산 설비, 나무모 수지 용기 생산 기계, 나무 구덩이 파는 기계, 산비탈 제초기 등 30여 종에 160여 점의 산림 기계와 설비, 기구가 각 도(직할시) 별로 출품되었음.
  - 전시회에서는 양묘 기계, 채종 기계, 조립 기계, 보호 기계, 산림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전문가 심사, 대중 심사가 진행되었음.
  - 자동회전식 나무모 영양 단지 기계, 나무모 온실 용지 열펌프와 원통식 풍력 양수 및 발전기, 나무 종자 파종 기계 등이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음.

스피룰리나 식료품 개발 -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6.11.12.)

- 백송종합식료공장은 평안남도의 대표 식료품 생산 기지이며,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자체 발전소를 토대로 국가의 전력 보장 없이 식료품을 생산할 수 있음.

- 공장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스피롤리나 영양제 및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 나선 모양의 부유 생물인 스피롤리나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리적 기능을 높여주고 생장을 촉진시키는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음. 또한 스피롤리나의 소화 흡수율은 95%에 달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정을 받았음.
  - 공장 일꾼과 기술자는 스피롤리나를 생산할 목표를 제기하고 짧은 기간에 실내 배양장과 건조장, 자체의 분석 시설과 생산 조종 체계를 갖춘 스피롤리나 생산 공정을 확립하였음.
  - 최근에는 스피롤리나의 품질에 대한 국가 규정이 제정되었음.

사탕수수 가공 기지 건설 완공 -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6.11.13.)

- 사탕수수 가공 기지가 황해북도에 완공되고 첫 시제품이 생산되었음.
  - 토산군 백화리에 건설된 가공 기지는 3,000여 m<sup>2</sup>의 부지 면적과 800여 m<sup>2</sup>의 건축 면적에 설탕 생산 공정, 물엿 생산 공정, 술 생산 공정, 식초 생산 공정으로 이루어져있음.
  - 황해북도는 토지, 용수, 전기 공급이 원활한 토산군 백화리를 사탕수수 재배 적지로 정하고 인근에 가공 기지를 건설하였음.
  - 2016년 황해북도에서는 재배한 사탕수수를 원료로 가공 기지에서 질 좋은 설탕과 물엿을 생산하였음.

식료공업부문 제품 전시회 진행(로동신문 2016.11.26.)

- 201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식료일용공업성 인민 소비품 전시장에서 제6차 전국술, 기초식품전시회, 전국어린이식료품전시회, 제6차 도종합식료공장제품전시회가 진행되었음.
  - 중앙과 지방의 식료품 생산 공장은 수천 점의 어린이 식료품, 술과 간장, 된장, 기름 등이 전시회에 출품되었음.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곡산공장, 선흥식료공장, 경흥은하수식료공장이 생산한 압죽가루와 분유, 당과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평양기초식품공장, 개성기초식품공장, 신의주기초식품공장, 우시장공장, 맹산식료공장의 기초식품은 맛이 좋고 표준화, 규격화가 실현되어 있어 참가자의 호평을 받았음.
  - 대동강식료공장, 평양술공장, 강계포도술공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사리원경암술공장 등에서 내놓은 각종 술, 막걸리가 참가자의 인기를 모았음.
  -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백송종합식료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 압록강종합식료공장, 수양산종합식료공장이 이번 도종합식료공장제품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음.

- 전시회 기간 동안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식료 공업의 선진 기업이 과학기술 강습을 진행하였음.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대표단 귀국(로동신문 2016.12.04.)

- 니클라스 스반스트롬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2016년 12월 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음.
  - 대표단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음. 또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외경제성,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일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세계적인 추세, 녹색 지대 개발(로동신문 2016.12.04.)

- 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자연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 지대를 개발하고 있음.
  - 녹색 지대는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용 효율을 높여 공해가 없는 생산 환경을 보장해주는 지역임.
  - 기업은 녹색 지대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순환과 공생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오염물 배출을 줄임.
- 북한의 황해남도 강령군이 녹색 지대로 개발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강령군은 수산 자원이 많고 풍력, 태양열, 조력, 수력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 바닷가 양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 좋고 벼, 옥수수,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음.
  - 강령군 일대에는 왕대 등 식물 자원이 다양하고 유색금속자원도 풍부함. 강령군은 좋은 자연 생태 환경과 수산업,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녹색 지대로 개발될 잠재력이 있음.
- 대외경제성은 강령군을 국제 녹색 시범 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설계총국의 지도 아래 국토환경보호성 국토계획설계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가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음.
  - 국가설계총국은 강령군의 산림 생태계와 바닷가 연안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녹색산업 지역, 녹색주민지역, 녹색연안지역, 관광지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임.

2016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 개막(로동신문 2016.12.07.)

- 2016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개막하였음.

- 전시 및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농업과학고,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등 교육 과학 연구 기관, 농업 부문 생산 단위의 일꾼과 과학자, 연구사,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이 참가하였음.
- 전시 및 발표회는 농작물 육종 분과, 식물 보호 분과, 수의 축산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음.
- 북한의 지역과 기후 풍토에 맞는 다수확 우량 품종과 유기농법, 채소 작물, 유지 작물, 가축 육종 및 사양 기술, 수의 방역 사업 등 1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가 제출되었음.
- 새 품종 곡물과 나노 기술을 도입한 비료 및 농약 등 190여 종에 500여 점의 전시품이 출품되었음.

# 국내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1 경제일반

### ◆ 경제일반

북한의 공식 시장은 398개로 조사

- 통일연구원은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 전역의 시장을 분석한 결과 공식 시장이 모두 398개로 조사되었음.
  - 도별로는 평안남도가 88개로 가장 많았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48개였음. 평안남도에서 시장이 많은 것은 인구가 많고 공장·기업소도 많아 비교적 활발히 물품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북한의 공식 시장은 2003년 종합시장 개설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된 곳으로 울타리와 매대, 지붕 등을 설치해 물건을 팔고 있음.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과 달리 장세(세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 판매 품목은 수산물, 당과류, 신발 등 잡화를 비롯해 화장품, 옷, 가전제품, 담배, 조미료, 종자, 돼지고기, 남새(채소), 곡물류, 소금 등이었음.
  - 상품은 대부분 신의주 혜산 무산 나선 등으로 유입된 뒤 평성, 청진, 함흥, 원산 등 대형 도매시장을 거쳐 도시와 군의 소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경제, "[북한 포커스] 북한 공식 시장 398곳...평안남도 88개 '최다'", 2016.10.12.

평양의 소비 심리 위축

-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자금 경색으로 소비와 상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이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자금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중앙일보, "평양마저 소비절벽...평양냉면 50% 할인해도 못 사먹어". 2016.10.19.

#### CIA의 북한 현황자료 발표, 북한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경제발전 부진

○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북한의 고령화 추세, 휴대전화 보급, 경제 상황, 무역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북한 현황자료(Fact book)를 통해 발표하였음.

- CIA는 2016년 7월 북한의 인구 2,511만 명 중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9.74%로 추정돼 북한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65세 이상 남성이 84만 명, 여성이 160만 명으로 각각 추정됐음.

-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가 2015년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하였음.

- 1인당 국민소득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1,800달러(203만 원 상당)로 변화가 없었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같은 기간 400억 달러(45조 원)로 제자리걸음을 보였음.

- 수출은 2014년 43억 달러(4조 8,000억 원)에서 2015년 41억 달러(4조 6,000억 원)로 감소했고, 수입 역시 같은 기간 55억 달러(6조 2,000억 원)에서 48억 달러(5조 4,000억 원)로 줄었음.

연합뉴스, "북한 휴대폰 324만대...100명당 13대 보유", 2016.10.26.

#### 북한 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 남한의 1/22 수준

○ 북한 주민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남한의 1/22 수준인 139만 원으로 나타났다.

-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 5,120억 원으로 남한(1,565조 8,000억 원)의 1/45 수준이었음. 1인당 GNI는 2015년과 같은 139만 원으로 남한(3,094만 원)의 1/22 수준이었음.

○ 2015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77만 9,000명으로 남한(5,101만 5,000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2.88명으로 남한(118.46명)의 1/9수준이었음.

- 2015년 남한 경제 규모는 2.6% 성장했지만 북한은 1.1% 줄어들었음. 이는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가 이어진 탓으로 분석됨. 2015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남한(9,633억 달러)의 1/154 수준인 63억 달러였음.

-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1만 6,000톤으로 남한(432만 7,000톤)의 절반 수준이었음.

동아일보, "북한 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 南의 1/22 수준...휴대전화 보유는?", 2016.12.15.

2015년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은 8,300만 달러

- 2015년 북한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8,300만 달러(약 986억 원)로 집계되었음.
  - 미국의소리(VOA)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 FDI 순유입액은 2014년의 약 6,3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음.
- 연합뉴스, "작년 외국인 대북투자 8천300만달러...전년 대비 30% 증가", 2016.12.20.

## ◆ 대외무역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증가, 석탄 수출 가격 상승

- 최근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이 증가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북한의 탄광 채굴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줄었던 석탄 수출량이 최근 갑자기 늘어나면서 국내 탄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지난해(2015년)부터 석탄 수출은 중국 정부의 품질 규제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대북 제재까지 겹쳐 최상품 석탄도 톤당 40달러에 소량 수출되었다"면서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2016년 10월에는 톤당 62달러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3월 초 채택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270호의 빈틈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연합뉴스,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증가, 가격도 1t당 20달러 급등", 2016.10.12.

일부 품목의 중국의 대북 수입액 감소

-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시작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철광석 수입은 증가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의 북중 교역액은 2016년 4월(중국의 대북 제재에 착수 시점) 이후 5개월 간 약 4억 2,000만 달러(약 4,717억 원)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석탄 수입액은 8.9% 감소했으며, 생철(가공되지 않은 무쇠) 수입액도 약 37% 감소하였음.
- 연합뉴스, "중국, 대북 제재에도 북한서 철광석 수입 늘어", 2016.10.13.

북한군, 중국에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군이 소형 목조선을 만들어 어민에게 빌려주고 외화 벌이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와 동해 양쪽 항구에 소형 선박 약 3,000척을 보유 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3~4명씩 같은 조를 이뤄 군으로부터 선박을 빌려 해산물을 잡음.
  - 북한군 및 경제 관계자는 어민이 해산물을 북한 중개인에게 팔아 얻은 외화 일부를 군에 선박 임대료 명목으로 낸다고 설명하였음.
  - 중개인은 북한 북동부 라선(나선)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국 매수업자에게 수산물을 팔아 외화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마이니치는 북한 어민의 하루 어획량은 20~30톤 정도이며 수산물의 총량은 수만~ 수십 만 톤 규모라고 추정하였음. 북한이 중국에 수산물을 팔아 연간 2억~3억 달러(약 2,267억~3,400억 원)의 외화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수산물 중국에 팔아 연간 3천억 원 외화벌이", 2016.10.15.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수산물 수출 확대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수산물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음.
  -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2016년 1~8월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약 1억 1,000만 달러(1,236억 원)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이는 전년(6,500만 달러)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준임.
  - 품목별로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 수출액이 8,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새우와 게를 비롯한 갑각류(2,600만 달러), 건조 어류(300만 달러) 순이었음.
-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수산물 수출도 2016년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음.
  - 러시아 연방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1분기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액은 약 280만 달러로, 2015년 총 수출액(160만 달러)을 상회했음.

연합뉴스, "북한, 제재속 중국·러시아에 수산물 수출 대폭 늘려", 2016.10.19.

평안북도 앞바다에서 북중 간 밀무역 진행

- 북한과 중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 밀무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북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6년 4월 이후 북한과 중국 배 수십 척이 거의 매일 평북 철산군 앞바다에서 만나 밀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또한 소식통은 "식량·건설 자재·농수산물·생필품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까지 직접 거래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북한·중국 평북 앞바다서 대규모 밀무역... 수산물·철광석 등 직접 '배떼기 거래'", 2016.10.21.

#### 2016년 3/4분기 북중 교역액, 전년 대비 3.4% 증가

○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으나, 북중 간 교역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16년 3/4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5억 5,000만 달러(1조 7,569억 원)로 2015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2016년 3/4분기 기준, 석탄은 북한의 대 중국 수출 품목 1위로, 2억 8,000만 달러(3,173억 원) 어치를 수출하였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 석탄 가격이 2016년 8월 초 톤당 59달러였으나 2016년 10월 99달러로 급등하였다고 보도하였음. 톤당 석탄 가격 증가가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 2016년 3/4분기 기준,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 2위 품목은 남성용 코트(8,700만 달러), 3위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에 해당하는 수산물(6,700만 달러)였음.

○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화물 자동차로, 3,100만 달러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음. 휴대전화(1,390만 달러), 자동차료처리기계(1,370만 달러)는 각각 2위, 3위였음.

- 2016년 3/4분기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은 총 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수입액은 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늘어났음.

연합뉴스, "북중 3/4분기 교역액, 전년 대비 3.4% 증가...석탄수출도 5% 늘어", 2016.10.26.

#### 2016년 3/4분기 북미 교역액, 전년 대비 97% 감소

○ 북한과 미국의 2016년 교역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6년 3/4분기(7~9월) 북미 간 교역액이 약 4만 4,000달러(약 5,000만 원)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다고 밝혔음.

- 2016년 1~3분기 북미 교역액 총합은 6만 8,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하였음. 특히 민간 기구의 구호·자선 지원 물품은 201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음.

연합뉴스, "2016년 3분기 북미 교역액, 전년 대비 97% 감소", 2016.11.08.

### 미국과 중국,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논의

-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음.
    - 북한은 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철광석을 '민생용'을 내세워 수출하면서 이번 새 결의안은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경제, "'북한 돈줄' 석탄수출 차단...미·중, 새 대북 제재안 합의", 2016.11.24.

###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단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여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하여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음.
    -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2016년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수출량 100만 톤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유엔은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 상한을 4억 90만 달러(약 4,704억 원) 또는 750만 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15년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함.
    -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조선일보, "중국 대북 제재 이행...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지", 2016.12.11.

### 중국, 북한산 구리 수입 중단

- 중국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수입 중단 공고를 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하여 2016년 12월 24일부터 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20여 일 간 한시적으로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반면 구리 니켈 등 광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음.
- 동아일보, "중국, 북한산 석탄 이어 구리도 수입 중단", 2016.12.24.

## 북한, 대중 비료 수입 증가

○ 2016년 11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하여 2016년 11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313톤으로, 전년 대비 5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음. 북한이 2016년 1~11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량은 총 15만 8,000여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만 313톤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북한, 중국산 비료수입 급증..."11월 수입량 작년의 5배", 2016.12.28.

## ◆ 대외교류 및 경제협력

### 북한-러시아 간 친선 확대 의지 표명

○ 북한이 러시아와의 수교 68주년을 맞아 양국의 역사적 친선·협조를 강조하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음.

- 노동신문은 ' 좋게 발전하는 조로(북러)친선협조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조로친선협조 관계를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없는(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밝혔음.

연합뉴스, "북한 "조러 친선확대 흔들림없는 의지"...수교 68주년", 2016.10.12.

### 북한, 람사르협약(습지보전협약) 가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추측

○ 북한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해 금강산 삼일포 일대 등을 보호 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선의 오늘' 웹사이트는 "지난달(2016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토환경보호성 주최로 금강산에서 습지보호 강습(세미나)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세미나에는 솔롱고 쿠렐바티르 람사르협약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과 빌리 랑에 한스 자이텔재단 동북아 담당관, 이경심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장, 북한 환경민족조정위원회·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강원도 국토환경보호 부문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가하였음.

- 매체는 "강습에서 '습지와 물 그리고 습지에 관한 협약', '북한에서의 습지보호와 한스자이텔재단의 사업', '람사르 지역 제정에 대해' 등의 발표가 진행됐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목록에 등록하는 절차와 등록 양식 기입 방법에 대한 실기 강습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 '습지보전협약' 가입 시동거나...금강산서 세미나 개최", 2016.10.15.

## ◆ 기타

### 신두만강대교의 부분 개통

- 2016년 1월 30일 중국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의 두만강 하류에 건설 중인 신(新)두만강 대교가 부분 개통하였음.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훈춘시는 훈춘과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의 4차로 중 2차로의 부분 개통식을 가졌음. 2014년 9월 착공한 지 2년 만임.
    - 1억 4,700만 위안(약 243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신두만강대교는 북한 나선경제특구로 이어지는 주요 접점으로 북중 교역의 새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동아일보, "중국, 훈춘-나진 잇는 '신두만강대교' 서둘러 개통...배경은?", 2016.10.02.

###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의 변전소 및 송전선로 복구 주장

- 북한 매체는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모두 복구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9월 27일 무산군과 회령시, 연사군 등 피해 지역의 변전소들이 모두 복구되고 전주(전봇대)복구는 95%계선(수준)으로 마감 단계에 들어서 전 지역에 대한 송전 계통이 모두 정상 가동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연합뉴스, "북한매체 "홍수피해 지역 변전소와 송전선로 모두 복구"", 2016.10.05.

### 중국 훈춘시, 나진항과 연결할 국제 버스 터미널 착공

- 중국은 북한 나진항과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 시에 대규모 국제 버스 터미널을 착공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훈춘시는 발표자료를 인용해 2016년 10월 10일 국제버스여객터미널 착공식이 개최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국제 버스 터미널은 훈춘시 북쪽 약 3.5km 지점에 들어서며 2015년 완공된 훈춘고속철도역 바로 북동편에 조성될 예정임. 부지면적은 3만 4,300㎡에 총 투자비 1억 4,482만 위안(약 243억 원 상당)을 투입해 2017년 완공할 계획임.
    - 훈춘시는 "새로 들어설 버스 터미널이 지린 성 내 중·단거리 여객은 물론 인근 헤이룽장(黑龍江) 성 그리고 랴오닝(遼寧) 성의 주요 도시 간 여객 운수도 맡는다"면서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간 국제 여객을 실어 나를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연합뉴스, "중국, 훈춘에 나진항 연결할 국제버스터미널 착공", 2016.10.15.

### 북한 수해 지역의 설사병·영양실조 어린이 환자 증가

-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로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한 달 만에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북한 수해 긴급 대응계획' 보고서를 통해 황해북도 지역에서 2016년 9월 한 달 동안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 달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유엔은 중증 급성영양실조 증세로 2016년 9월 병원을 찾은 어린이가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해 4배 가량 많아졌다고 밝혔음.
  - 매일경제, "북한 수해로 설사병·영양실조 어린이 4배 증가", 2016.10.15.

### 북한 수해 지역 내 설사병·급성 호흡기 환자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후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 WHO는 북한 당국의 자료를 인용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해 지역에서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WHO는 2016년 10월까지 설사나 급성 호흡기 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 WHO는 북한 당국이 수해 지역과 인근 시·도·군에서 전염병 보고·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북한은 수해 지역에 긴급 진료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종합적인 질병 대응 전략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음.
  - 연합뉴스, "WHO "북한 수해지역서 설사병·급성호흡기질환자 늘어"", 2016.10.19.

### 북한 고려항공의 취항 국가, 중국·러시아 2곳으로 축소

- 북한 고려항공이 취항한 나라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 두 곳만 남았다고 보도되었음.
  - 미국의소리(VOA)는 쿠웨이트 당국이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하여 북한-중국-쿠웨이트 노선이 폐지될 실정이라고 전하였음. 쿠웨이트에 앞서 파키스탄 정부도 2016년 7월부터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였음. 태국 정부는 2016년 4월 각료 회의를 통해 대북 결의 2270호를 승인하자서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음.
- 연합뉴스, "북한 고려항공 취항국, 대북 제재로 중·러 2곳만 남아", 2016.10.25.

### 최근 10년 간 북한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33명으로 집계

- 북한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총 1,533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재난 통계 분석 보고서'와 '재난통계자료'을 인용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서 총 10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10건 중 7건은 홍수였으며, 2007년과 2016년 홍수로만 각각 610명, 538명이 목숨을 잃었음. 태풍에 따른 사망자도 2012년 59명, 2016년 60명이었음.
- 북한에서 특히 홍수 피해가 큰 이유는 농지 확장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연합뉴스, "북한 최근 10년간 대규모 자연재해로 1천533명 사망", 2016.11.22.

#### 중국, 열차 활용하여 북한에 연료 공급

- 중국이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에 더해 열차를 통해서도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RFA에 "단둥 시내의 중국군(軍) 연료(유류) 공급 기지에서 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북한에 유류가 공급되고 있다"고 전하였음.
- 소식통은 다만 유류 수송 열차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지 중간에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중국, 열차 통해서도 북한에 연료 공급' <RFA>", 2016.11.29.

#### 이집트 오라스콤, 북한 통신 자회사 폐쇄

- 이집트 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 내 금융 자회사 오라뱅크(Orabank)를 폐쇄하기로 하였음.
- 이집트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에 따르면 2016년 12월 4일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테크놀로지(OTMT)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오라뱅크의 폐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 오라스콤은 폐쇄 절차에 따라 오라뱅크의 모든 현금과 유동성 자산을 오라스콤 자회사로 옮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오라스콤은 북한 내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는 미국의 제재에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전하였음.

매일경제, "이집트 오라스콤, 북한 통신자회사 폐쇄...휴대폰 어쩌나", 2016.12.05.

#### 북한의 고려링크, 양호한 2016년 3/4분기 실적

-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의 북한 합작 휴대폰 사업 실적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발표한 오라스콤의 3/4분기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6년 9월 30일 기준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4억 9,000만 달러(5,740억 원)였으며 2015년 말보다 32%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딜로이트는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고려링크의 2016년 3/4분기 이익이 6,400만 달러(749억 원)에 달한다며 "2분기 누적 세후 이익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 휴대전화 사업자 고려링크 3분기 실적호조", 2016.12.07.

##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북한 수해 지역의 쌀값 안정세로 전환

- 북한의 북부 지방 쌀값이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쌀 1kg의 가격이 북한 돈 4,300원, 옥수수는 1kg에 1,300원에 거래되었다고 밝혔다.
  -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남양지구의 최근 쌀 1kg 가격은 약 8,000원, 옥수수는 1kg에 2,0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수해로 도로와 철도가 차단되어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임.

연합뉴스, "북한 수해지역 쌀값 다시 안정세...한때 2배로 급등", 2016.10.02.

북한의 식량 생산량 증대와 북한 당국의 인센티브 제도 미이행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식량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북한 당국이 인센티브 제도(현물 분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농민 반발이 크다고 보도하였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016년 감자농사 수확치는 1정보(9,917㎡)당 평균 28~30톤으로 국가 알곡 생산 계획량(1정보당 26톤)을 초과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농민들에게 더 차례진(배당된) 몫은 없다"고 밝혔다.
  - 자강도의 소식통도 지금(2016년 10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알곡 수확량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00만 톤의 식량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알곡 생산량과 상관없이 농장원 1인당 하루 550g으로 식량 배급을 주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하였음.

-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가족 영농 성격이 강한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며 약속한 여유 식량 처분권 부여를 통한 현물 분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식량생산량 늘었는데 인센티브 약속은 공수표", 2016.10.06.

#### 북한의 기아위험도, 위험 수준인 것으로 발표

- 미국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2016년 북한의 기아 상태가 세계에서 21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도되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IFPRI의 '2016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 주민 10명 중 4명꼴로 건강을 유지할 만큼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식량 부족 상태"라고 지적하였음.

- 굶주림 지수는 국민의 영양 상태, 저체중 어린이 비율, 5세 이하 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냄.

- 지수가 30보다 높으면 식량 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 20~30은 '위험한 수준', 10~20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됨.

- IFPRI가 발표한 북한의 2016년 굶주림 지수는 28.6점으로 1990년의 점수(16.2점)보다 위험도가 11.4점 높아졌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6%가 영양실조로 1990년의 21%, 2010년의 32%보다 크게 나빠졌음. 5세 이하 유아의 저체중 비율도 2010년의 21%보다 더 나빠져 27.9%로 분석됐고 5세 이하 사망률은 2.5%를 기록하였음.

연합뉴스, "美연구소 "북한 기아위험 세계 21위"", 2016.10.12.

#### 북한의 3/4분기 일일 식량배급량은 300g으로 파악

- 북한이 2016년 3/4분기(7~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00g의 식량을 배급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는 2016년 들어 최소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600g)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북한당국이 목표로 하는 양(573g)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음. 3/4분기 배급량은 2분기 배급량(360g)보다 17%, 1분기 배급량(370g)보다 19% 줄어들었음.

연합뉴스, "북한 3분기 하루 배급량 300g...2016년 들어 최소", 2016.11.02.

#### FAO, 북한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2015년에 이어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FAO가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2016년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되었다고 보도하였음. 보고서는 "북한이 2016년 외부 지

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000톤에 이르지만, 지난(2016년) 10월 기준 23%가량인 16만 3,000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말하였음.

- FAO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2016년 8월 말과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농경지 2만 7,000헥타르가 훼손되면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2016년 식량부족분 77% 미확보", 2016.12.09.

#### 북한, 2016년 곡물 생산량 7% 증가

- 북한의 쌀 등 곡물 생산량이 2015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식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추정되었음.
-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의 기상, 병해충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원격 탐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2016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 발표하였음.
  -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곡물 총 생산량은 481만 톤으로, 2015년(450만 톤 추정)보다 약 7% 증가하였음.

- 작물별로는 쌀 생산량이 2015년 대비 10% 증가한 222만 톤으로 추정되었음.

- 옥수수(170만 톤), 감자(55만 톤), 보리(17만 톤) 등도 적게는 4%에서 최대 10%까지 생산량이 늘었음. 다만 콩류 및 기타 잡곡은 일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 전년 대비 6% 가량 줄어든 17만 톤으로 추정되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한 2016년도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549만 5,000톤임.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 생산된 곡물을 모두 소진하고도 약 69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북한의 하루 곡물 소비량은 약 1만 1,000톤, 한 달에 약 33만 톤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약 두 달 치 식량이 부족한 셈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2016년 곡물생산량 7% 증가...식량 부족은 여전", 2016.12.21.

### 3 농림수산 일반

북한산 송이, 중국산으로 바뀌어 한국에서 일부 유통

- 북한산 송이버섯이 중국산으로 둔갑되어 우리나라에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에서 1kg당 200달러(약 22만 8,000원)에 거래되는 1등급 북한산 송이는 우리나라의 모 백화점에서 1kg당 40만 원(350달러)에 팔렸고 추석에는 최고 80만 원(700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북한의 송이 산지는 함경북도 회령시와 청진시 부윤 구역, 칠보산,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로 알려졌다음.

연합뉴스, "북한산 송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한국서도 유통", 2016.10.17.

#### 북한, 미얀마에 농업 지원 제안

○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에 처하자 미얀마에 농업 지원을 제안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전해졌음. 미얀마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음.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트라 양곤 무역관의 보고서 '북한, 미얀마에 관계개선 제스처'를 인용하여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가 2016년 6월 농업관계부 장관에게 작황이 좋은 벼 품종 지원을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북한은 또 미얀마의 상습 수해 지역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는 치수 사업도 제안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미얀마에 농업지원 제안...고립탈피 의도", 2016.12.15.

PART 3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북중 교역 동향

KREI



# 북중 교역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표 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5. 1	0	0	94	78	1,261	136	1,569
2	0	0	104	0	391	1,759	2,254
3	0	91	19	0	362	384	856
4	0	1,384	627	0	1,183	460	3,654
5	0	197	444	0	80	87	808
6	0	137	1,028	0	584	869	2,618
7	0	246	2,833	0	369	16	3,464
8	0	130	1,416	0	180	692	2,418
9	0	246	961	0	273	25	1,505
10	0	109	891	0	655	0	1,655
11	0	160	451	0	120	0	731
12	0	317	1904	0	187	75	2,483
2015.1-12	0	3,017	10,772	78	5,645	4,503	24,015
2016. 1	0	0	229	0	26	0	255
2	0	228	99	0	0	0	327
3	0	0	0	0	0	0	0
4	0	0	267	0	3	144	414
5	0	0	633	0	25	4	662
6	0	146	1,125	0	263	16	1,550
7	0	16	2,074	0	132	0	2,222
8	0	114	3,740	0	48	0	3,902
9	0	17	9,858	0	540	356	10,771
10	0	21	3,593	0	887	30	4,531
11	0	158	1,135	0	252	7	1,552
12	0	310	2,092	0	360	0	2,762
2016.1-12	0	1,010	24,845	0	2,536	557	28,948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6년 12월 북한은 중국에서 5,663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2015년 12월의 3,129톤에 비해 곡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 동년 전월 대비 81.0%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0.2% 증가하였음.
- 2016년 12월까지 북한은 중국에서 총 52,575톤의 곡물을 수입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인 47,610톤에 비해 10.4% 증가하였음.
  - 곡물 총 수입액은 28,948천 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의 24,015천 달러에 비해 20.5% 증가함.
  - 2016년 12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곡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옥수수 5.9%, 쌀 79.7%, 밀가루 13.2%, 두류 1.2%로 쌀과 밀가루의 비중은 92.9%였음.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5. 1	0	0	157	120	2,814	183	3,274
2	0	0	180	0	869	2,438	3,487
3	0	240	37	0	1,140	405	1,822
4	0	5,557	1,075	0	3,225	399	10,256
5	0	520	738	0	146	110	1,514
6	0	360	1,686	0	1,667	1,305	5,018
7	0	650	4,535	0	964	20	6,169
8	0	345	2,324	0	477	1,048	4,194
9	0	650	1,554	0	743	32	2,979
10	0	290	1125	0	1,750	0	3,165
11	0	413	696	0	264	0	1,373
12	0	866	3031	0	378	75	4,350
2015.1-12	0	9,891	17,138	120	14,437	6,015	47,601
2016. 1	0	0	374	0	60	0	433
2	0	600	165	0	0	0	765
3	0	0	1	0	0	0	1
4	0	0	470	0	10	120	600
5	0	0	1,202	0	50	3	1,255
6	0	400	1,862	0	524	24	2,810
7	0	50	3,553	0	556	0	4,159
8	0	300	6,447	0	109	0	6,856
9	0	55	16,096	0	1,713	412	18,276
10	0	70	6,198	0	2,314	45	8,628
11	0	545	1,863	0	712	10	3,129
12	0	1,105	3,648	0	911	0	5,663
2016.1-12	0	3,125	41,879	0	6,958	614	52,575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 무역정보)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571.8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옥수수 370.8달러, 쌀 597.5달러, 밀가루 343.2달러였음.
  -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동년 전월 대비 3.6% 상승하였고 옥수수, 쌀, 밀가루는 각각 18.7% 감소, 5.6% 상승, 28.4% 하락하였음.
  - 2015년 한 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550.6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옥수수 323.2달러, 쌀 593.3달러, 밀가루 364.5달러, 콩 907.2달러임.
- 2016년 12월 28일 기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 당 589달러(FOB 본선인도가격, 도정율 4% 1등급, 25kg 부대 포장 품질 기준), 태국산 장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 당 367달러(FOB, 100% B등급 기준)임.
  - 2016년 12월 28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근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37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 밀은 147달러, 대두는 370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였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표 3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5. 1	875	0	0	114	989
2	166	0	0	131	297
3	2,078	0	0	457	2,535
4	1,284	0	4	198	1,486
5	3,902	0	13	127	4,042
6	2,850	0	8	331	3,189
7	5,444	0	0	53	5,497
8	1,038	0	0	0	1,038
9	59	0	0	0	59
10	103	0	2	0	105
11	15	0	1	0	16
12	112	0	0	136	248
2015.1-12	17,926	0	28	1,547	19,501
2016. 1	8,784	0	2	161	8,947
2	16,739	0	0	1,669	18,408
3	5,506	0	21	1,989	7,516
4	88	18	36	223	365
5	123	0	1	225	349
6	326	0	0	80	406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7	523	8	7	29	567
8	608	0	0	0	608
9	187	0	0	0	187
10	48	0	0	0	48
11	72	0	0	40	112
12	38	0	0	66	104
2016.1-12	33,042	26	67	4,482	37,617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6년 12월 북한은 중국에서 299톤의 비료를 수입하여 동년 11월 313톤에 비해 수입량이 감소하였음. 이는 작년도 전체 수입량(70,981톤)의 약 0.4%에 해당함.

- 12월 북한이 수입한 비료는 질소비료 152톤이며 복합비료, 칼리비료, 인비료는 수입되지 않았음.
- 금년 12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158,264톤으로 성분량 기준<sup>1)</sup>으로 요소는 62,366톤, 유안은 1,540톤임. 2015년의 요소와 유안의 성분량은 각각 25,551톤, 2,222톤임.

표 4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5~2016

단위 : 수입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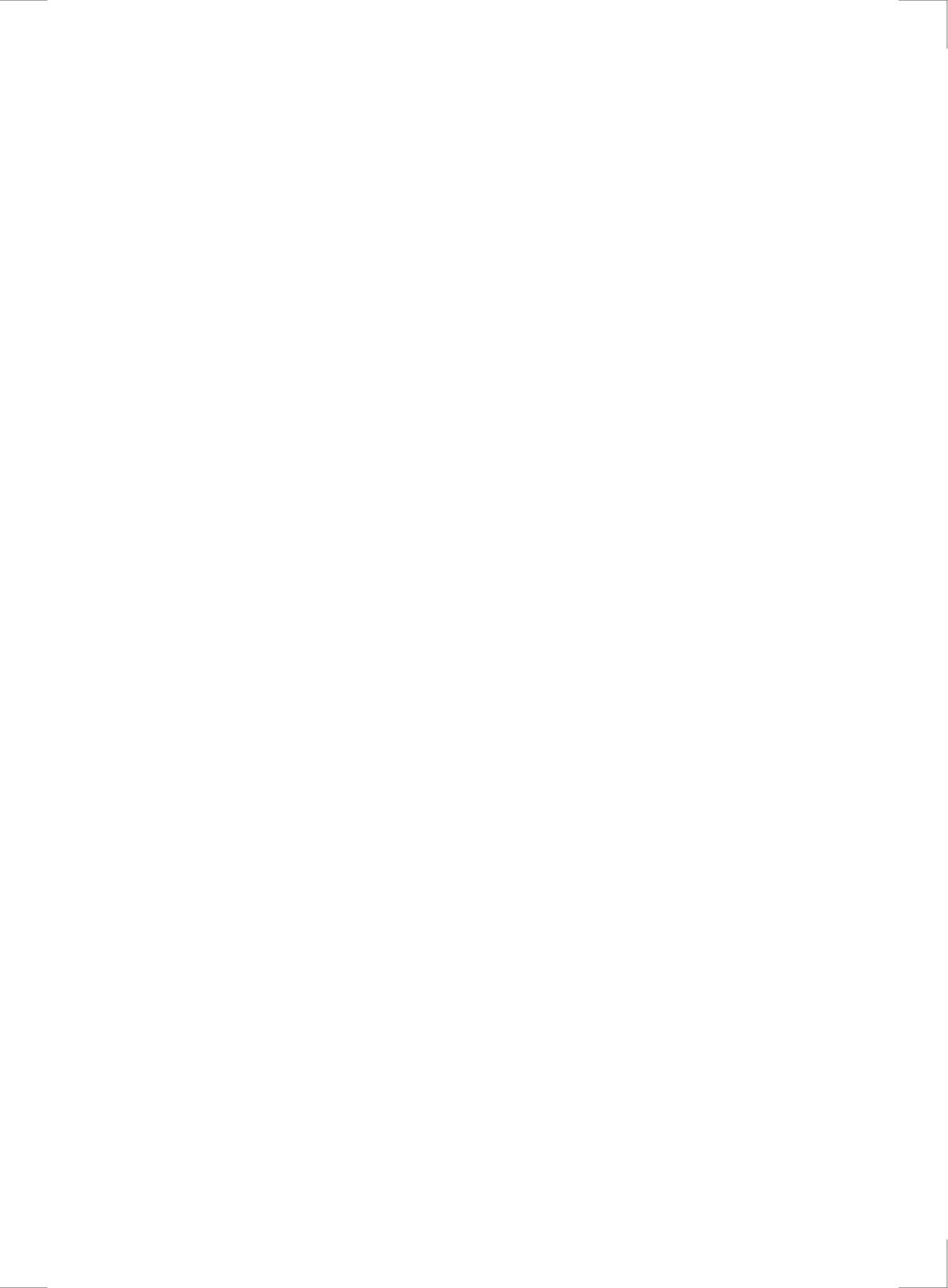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5. 1	3,184	0	0	300	3,484
2	600	0	0	345	945
3	11,144	0	0	1,111	12,255
4	4,906	0	5	450	5,361
5	15,312	0	18	274	15,604
6	9,307	0	20	686	10,013
7	18,362	0	0	110	18,472
8	3,558	0	0	0	3,558
9	205	0	0	0	205
10	349	0	3	0	352
11	61	0	3	0	64
12	394	0	0	274	668
2015.1-12	67,382	0	49	3,550	70,981
2016. 1	37,003	0	5	325	37,333
2	74,828	0	0	4,232	79,060

1) 성분비는 요소 45%, 유안 21%를 적용하였음.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3	26,388	0	37	5,836	32,261
4	328	52	97	554	1,031
5	562	0	2	533	1,097
6	1,283	0	0	189	1,472
7	1,934	30	15	67	2,046
8	2,401	0	0	0	2,401
9	772	0	0	0	772
10	177	0	0	0	177
11	220	0	0	93	313
12	152	0	0	147	299
2016.1-12	146,050	82	156	11,976	158,26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6년 12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230.6달러, 141.5달러임.
- 2015년 12월 누적 기준,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294.9달러, 111.0달러임. 2014년의 평균 수입단가는 각각 302달러, 116.5달러임.



PART 4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REI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6.12.

단위: 만 달러

구 분	목 표 <sup>1)</sup>	실 적 <sup>2)</sup>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sup>3)</sup>	31,376	22,415	71.4	일본 9,568, 한국 5,381, 미국 2,923, 호주 699, EC 500,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421, 캐나다 383, 스웨덴 343, 이탈리아 322, 노르웨이 236 등
7차 '01.1~'12	38,398	37,760	98.3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6,872, 농협 1,274, Korean Welfare Foundation 740, 이탈리아 708, 굿네이버스 6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17 등
8차 '02.1~'12	24,684	36,084	146.2	WFP 9,932, 한국 8,200, 미분류 6,589, 미국 6,349, EC 1,553, 독일 470, 호주 342, 스웨덴 274, 노르웨이 274, 캐나다 273 등
9차 '03.1~'12	22,937	18,670 (381)	81.4	미국 3,152, WFP 2,791, 한국 1,683, EC 1,631, Korean Church Federation 1,288,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93, 독일 491 등
10차 '04.1~'12	520,880	30,178	5.8	한국 11,774, 일본 4,670, EU 3,000, 미국 1,931, 스웨덴 1,154, 호주 824, 독일 800, 적십자사 662, 캐나다 532 등

(계속)

구 분	목 표	실 적 <sup>1)</sup>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1차 '05.1~12	-	4,983	-	유럽연합 1,740, 독일 777, 스웨덴 546, 이집트 388, 노르웨이 352,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덴마크 RC 90 등
12차 '06.1~12	-	5,054 (1,050)	-	한국 2,198(1,000), EU 1,103(50), 스웨덴 507, 노르웨이 403, 덴마크 157, 아일랜드 152, 독일 129, 이탈리아 106 등
13차 '07.1~12	-	11,698 (1,392)	-	사적지원 3,027(1,172), 한국 2,338,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110, 호주 647(62), 스웨덴 628(73), EU 537, 독일 523, 노르웨이 479 등
14차 '08.1~12	-	5,670	-	한국 1,532, 사우디아라비아 848, 독일 561,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28 등
15차 '09.1~12	-	6,13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한국 1,421, 스웨덴 1,406,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44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캐나다 244,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미국 60,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8,954 (16)	-	WFP 1,66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8, 스웨덴 900, 스위스 838, 호주 705, WHO 690, 노르웨이 266 등
18차 '12.1~12	-	11,779	-	WFP 5,00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브라질 412, 노르웨이 351 등
19차 '13.1~12	-	6,280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20차 '14.1~12	-	3,322	-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21차 '15.1~12	-	3,544	-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22차 '16.1~12 <sup>4)</sup>	-	4,597 (21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총 계	-	280,350 (3,058)	-	

주: 1)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2)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 금액과 이행 약속(Pledges) 금액을 합산하였으며 이행 약속 금액은 별도 표기하였음.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도 이와 같음.

3)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되었음. 본 표의 2000~2016년도 지원액은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였음. 1995~1999년도 지원액은 구 FTS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음

4) 2016년도 지원액은 FTS의 구 홈페이지와 신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 후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uary, 10, 2017)

표 2 2016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6.1.1.~12.31.)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ARITAS	독일	1,528,879	요양원 내 노약자 및 병약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 증대(AA-S05 321.50 PRK 02/16)	
CW	Start Fund	157,274	NFI 지원(위생 및 주방 기구 배분), 담요 등 겨울 용품 지원	
DWHH	EuropeAid	1,574,101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European Commission	1,698,630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	
	Start Fund	78,637	화령, 온성 지역 대상 긴급 구호(WASH 및 식품 이외의 물품 집중)	
	독일	830,688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재난 위기 감소 지원(경사지 관리)(AA-S05 321.50 PRK 03/15)	
	사적지원		144,995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73,696	북한 내 4개 지역의 경사지 관리(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203,245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소계	4,603,992		
FAO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784,000	취약 계층의 영양 실조 현상 완화를 위한 대두 증산 긴급 지원	
		593,443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영양 확보)	
	소계	1,377,443		
HI	스위스	95,692	신체 장애인 재활 능력 증대(7F-095556.01)	
ICRC	스위스	493,583	인도적 지원(7F-08393.36)	
SC	스웨덴	545,263	인도적 지원	
	독일	840,708	학교 및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제도적 기반 강화(AA-S05 321.50 PRK 01/16)	
	Start Fund	78,637	피난처 및 가정용품 배분(위생용품 포함)	
	덴마크	75,245	WASH, 교육, 피난처 제공(2015-49756)	
	소계	1,539,853		
SDC/SHA	스위스	254,582	북한 홍수 피해 지역 긴급 지원(SDC를 통한 직접 지원)(7F-09693.01)	
		1,301,186	위생 및 공중보건 프로그램(7F-0722.03)	
	소계	1,555,768		
TGH	프랑스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UNFPA	유엔중앙긴급구호 기금	700,000	임신부에 대한 여성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248,384	함경북도 지역의 기초 의료 지원 및 여성 보건 증진	
	소계	948,384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UNICEF	캐나다	516,987	UNICEF의 지원 요청[D003248/7062276] (SM160151)
		156	UNICEF의 지원 요청(SM140143)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650,732	영양실조에 관한 지역 공동체 관리(CMAM)
		995,982	구호물자(필수 의약품) 제공을 통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치명 질병 발생을 감소
		462,882	홍수 피해 지역 대상 5세 미만 취약 아동 지원(SM160459)
		1,208,351	홍수 피해 지역의 수재민 대상 식수, 위생(WASH) 긴급 지원
	스웨덴	644,934	유니세프의 영양 요청(52040468 AMENDMENT NO.7) (SM160106)
		584,932	UNICEF의 영양 증진 요구(52040468 AMENDMENT NO.7.10) (SM160106)
	UNICEF를 위한 US 펀드	550,000	홍수 긴급 피해 지원(SM160506)
소계	6,614,956		
WFP	WFP 기타	1,519,4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캐나다	1,498,127	WFP PRRO 200907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D00325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999,744	홍수 피해지역의 식량 안보 확보
		789,986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의 취약 계층(아동,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2,87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인도	1,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지역의 재난 수용 능력 강화(PRRO 200907)
	러시아	3,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스위스	1,914,257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2)
		1,577,722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 (7F-00972.21.01)
		4,084,552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지역 내 재난 대처 능력 강화(PRRO 200907)
		501,505	WFP 현금 공여(7F-06817.39) (PRRO 200907)
	호주	2,189,781	WFP의 영양 지원 요청(이행 약속)
	다양한 공여자	685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PRRO 200532)
소계	21,945,759		
WHO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999,978	구호 강화 및 제공, 저체중 신생아 및 취약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751,729	홍수 피해 지역의 보건 지원
	소계	1,751,707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IDA	EuropeAid	151,861	식량 안보를 위한 감자 재배 및 저장 기술 지원 (DCI-FOOD /2012/308-508)
PU	프랑스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독일 RC	독일	453,001	함경남도 재난 준비 (AA-S05 321.50 PRK 03/15)
덴마크 RC	덴마크	102,680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식량, 식수, 보건, 주거, 식량 외 제품 분배
스웨덴 RC	스웨덴	938,086	인도적 지원
		467,946	WASH 및 피난처 지원
	소계	1,406,032	
핀란드 RC	European Commission	339,751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ECHO/-XA/BUD/2016/91019)
		318,471	홍수 발생 이후 식품 이외의 물품 보급(ECHO/DRF/BUD/2016/91022)
	소계	658,222	
기타	러시아	현물지원	현물 지원: 설탕(136MT), 생선 통조림(20MT), 육류 통조림(20MT), 디젤 연료(704MT)
	스위스	157,520	경사지 관리 지원(7F-08384.03)
합 계		45,968,035	

주: 1)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2)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음. 본 표는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2000~2016년도 데이터를 작성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0, 2017)

표 3 2016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6.1.1.~12.30.)

분야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긴급 지원 (북한 홍수 관련)	Start Fund	CW	157,274	NFI 지원(위생 및 주방 기구 배분), 담요 등 겨울 용품 지원
		DWHH	78,637	회령, 온송 지역 대상 긴급 구호(WASH 및 식품 이외의 물품 집중)
		SC	78,637	피난처 및 가정용품 배분(위생용품 포함)
	UNICEF를 위한 US 펀드	UNICEF	550,000	홍수 긴급 피해 지원(SM160506)
	스위스	SDC/SHA	254,582	북한 홍수 피해 지역 긴급 자원(SDC를 통한 직접 지원)(7F-09693.01)
	유엔중앙긴급구 호기금	핀란드 RC	318,471	홍수 발생 이후 식품 이외의 물품 보급(ECHO/DRF/BUD/2016/91022)
		UNICEF	1,208,351	홍수 피해 지역의 수재민 대상 식수, 위생(WASH) 긴급 지원
		WFP	999,744	홍수 피해지역의 식량 안보 확보
		WFP	789,986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의 취약 계층(아동,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WHO	751,729	홍수 피해 지역의 보건 지원
		FAO	593,443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영양 확보)
		UNICEF	462,882	홍수 피해 지역 대상 5세 미만 취약 아동 지원(SM160459)
	UNFPA	248,384	홍수 피해 지역의 기초 의료 지원 및 여성 보건 증진	
소계			6,492,120	
농업	EuropeAid	DWHH	1,574,101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Fida	151,861	식량 안보를 위한 감자 재배 및 저장 기술 지원 (DCI-FOOD /2012/308-508)
	Germany	DWHH	830,688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재난 위기 감소 지원(경사지 관리)(AA-S05 321.50 PRK 03/15)
	사적지원	DWHH	203,245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유엔중앙긴급구 호기금	FAO	784,000	취약 계층의 영양 실조 현상 완화를 위한 대두 증산 긴급 지원
소계			3,543,895	
물과 위생	European Commission	DWHH	1,698,630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
	사적지원	DWHH	144,995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스위스	SDC/SHA	1,301,186	위생 및 공중보건 강화(7F-0722.03)
	스웨덴	스웨덴 RC	467,946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소계			3,612,757	
식량 및 인도적 지원	WFP 기타	WFP	1,519,4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다양한 공여자	WFP	685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PRRO 200532)
	덴마크	덴마크 RC	102,680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식량, 식수, 보건, 주거, 식량 외 제품 분배
	독일	CARITAS	1,528,879	요양원 내 노약자 및 병약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 증대(AA-S05 321.50 PRK 02/16)
	러시아	WFP	3,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계속)

분 야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식량 및 인도적 지원 (계속)	스웨덴	스웨덴 RC	938,086	인도적 지원
		UNICEF	644,934	유니세프의 영양 요청(52040468 AMENDMENT NO.7) (SM160106)
		UNICEF	584,932	UNICEF의 영양 증진 요구(52040468 AMENDMENT NO.7.10) (SM160106)
		SC	545,263	인도적 지원
	스위스	WFP	4,084,552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지역 내 재난 대처 능력 강화(PRRO 200907)
		ICRC	493,583	인도적 지원(7F-08393.36)
		HI	95,692	신체 장애인 재활 능력 증대(7F-095556.01)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WFP	2,87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UNICEF	1,650,732	영양실조에 관한 지역 공동체 관리(CMAM)
		WHO	999,978	구호 강화 및 제공, 저체중 산생아 및 취약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UNICEF	995,982	구호물자(필수 의약품) 제공을 통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치명 질병 발생을 감소
		UNFPA	700,000	임신부에 대한 여성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인도	WFP	1,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지역의 재난 수용 능력 강화(PRRO 200907)
	캐나다	WFP	1,498,127	WFP PRRO 200907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D003250]
		UNICEF	516,987	UNICEF의 지원 요청[D003248/7062276] (SM160151)
		UNICEF	156	UNICEF의 지원 요청(SM140143)
	프랑스	PU-AMI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TGH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호주	WFP	2,189,781	WFP의 영양 지원 요청(이행 약속)
	소계			26,288,297
재난 관련	European Commission	핀란드 RC	339,751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ECHO/-XA/BUD/2016/91019)
	독일	독일 RC	453,001	함경남도 재난 대비 (AA-S05 321.50 PRK 03/15)
		SC	840,708	학교 및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제도적 기반 강화(AA-S05 321.50 PRK 01/16)
	소계			1,633,460
기타	덴마크	SC	75,245	WASH, 교육, 피난처 제공(2015-49756)
	러시아	기타	현물 지원	현물 지원: 설탕(136MT), 생선 통조림(20MT), 육류 통조림(20MT), 다질 연료(704MT)
	사적지원	DWHH	73,696	북한 내 4개 지역의 경사지 관리(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스위스	WFP	1,914,257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2)
		WFP	1,577,722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 (7F-00972.21.01)
		WFP	501,505	WFP 현금 공여(7F-06817.39) (PRRO 200907)
		기타	157,520	경사지 관리 지원(7F-08384.03)
합 계			45,968,035	

주: 1)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2)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음. 본 표는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2000~2016년도 데이터를 작성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0, 2017)

표 4 2016년도 원조국(단체)별 대북 지원 실적 (2016.1.1.~12.31.)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FP 기타	WFP	1,519,4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EuropeAid	DWHH	1,574,101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Fida	151,861	식량 안보를 위한 감자 재배 및 저장 기술 지원 (DCI-FOOD /2012/308-508)
	소계	1,725,962	
European Commission	DWHH	1,698,630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
	핀란드 RC	339,751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ECHO/-XA/BUD/2016/91019)
		318,471	홍수 발생 이후 식품 이외의 물품 보급(ECHO/DRF/BUD/2016/91022)
소계	2,356,852		
Start Fund	CW	157,274	NFI 지원(위생 및 주방 가구 배분), 담요 등 겨울 용품 지원
	DWHH	78,637	회령, 온성 지역 대상 긴급 구호(WASH 및 식품 이외의 물품 집중)
	SC	78,637	피난처 및 가정용품 배분(위생용품 포함)
	소계	314,548	
UNICEF를 위한 US 펀드	UNICEF	550,000	홍수 긴급 피해 지원(SM160506)
다양한 공여자	WFP	685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PRRO 200532)
덴마크	덴마크 RC	102,680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식량, 식수, 보건, 주거, 식량 외 제품 분배
	SC	75,245	WASH, 교육, 피난처 제공(2015-49756)
	소계	177,925	
독일	CARITAS	1,528,879	요양원 내 노약자 및 병약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 증대(AA-S05 321.50 PRK 02/16)
	SC	840,708	학교 및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제도적 기반 강화(AA-S05 321.50 PRK 01/16)
	DWHH	830,688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재난 위기 감소 지원(경사지 관리)(AA-S05 321.50 PRK 03/15)
	독일 RC	453,001	함경남도 재난 준비 (AA-S05 321.50 PRK 03/15)
	소계	3,653,276	
러시아	WFP	3,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기타	현물 지원	현물 지원: 설탕(136MT), 생선 통조림(20MT), 육류 통조림(20MT), 디젤 연료(704MT)
	소계	3,000,000	
사적지원	DWHH	203,245	북한의 4개 서부 지역의 채소, 콩, 목초 씨앗 생산 (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144,995	구장과 안변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지원(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73,696	북한 내 4개 지역의 경사지 관리(Welthungerhilfe internal funds)
	소계	421,936	

(계속)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	스웨덴 RC	938,086	인도적 지원
	UNICEF	644,934	유니세프의 영양 요청(52040468 AMENDMENT NO.7) (SM160106)
		584,932	UNICEF의 영양 증진 요구(52040468 AMENDMENT NO.7.10) (SM160106)
	SC	545,263	인도적 지원
	스웨덴 RC	467,946	WASH 및 피난처 지원
	소계	3,181,161	
스위스	WFP	4,084,552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지역 내 재난 대처 능력 강화(PRR0 200907)
		1,914,257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7F-00972.22)
		1,577,722	스위스 낙농 제품 지원 (7F-00972.21.01)
		501,505	WFP 현금 공여(7F-06817.39) (PRRO 200907)
	SDC/SHA	1,301,186	위생 및 공중보건 프로그램(7F-0722.03)
		254,582	북한 홍수 피해 지역 긴급 지원(SDC를 통한 직접 지원)(7F-09693.01)
	ICRC	493,583	인도적 지원(7F-08393.36)
	HI	95,692	신체 장애자 재활 능력 증대(7F-095556.01)
	기타	157,520	경사지 관리 지원(7F-08384.03)
	소계	10,380,599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WFP	2,87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PRRO 200532)
		789,986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의 취약 계층(아동,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999,744	홍수 피해지역의 식량 안보 확보
	UNICEF	1,650,732	영양실조에 관한 지역 공동체 관리(CMAM)
		1,208,351	홍수 피해 지역의 수재민 대상 식수, 위생(WASH) 긴급 지원
		462,882	홍수 피해 지역 대상 5세 미만 취약 아동 지원(SM160459)
		995,982	구호물자(필수 의약품) 제공을 통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치명 질병 발생을 감소
	WHO	999,978	구호 강화 및 제공, 저체중 신생아 및 취약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751,729	홍수 피해 지역의 보건 지원
	UNFPA	700,000	임신부에 대한 여성 보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248,384	홍수 피해 지역의 기초 의료 지원 및 여성 보건 증진
	FAO	784,000	취약 계층의 영양 실조 현상 완화를 위한 대두 증산 긴급 지원
		593,443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영양 확보)
소계	13,055,211		
인도	WFP	1,000,000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 및 지역의 재난 수용 능력 강화(PRR0 200907)

(계속)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캐나다	WFP	1,498,127	WFP PRRO 200907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영양 지원[D003250]
	UNICEF	516,987	UNICEF의 지원 요청[D003248/7062276] (SM160151)
		156	UNICEF의 지원 요청(SM140143)
	소계	2,015,270	
프랑스	PU-AMI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TGH	163,934	아동 위탁 기관에 대한 식량 지원
	소계	327,868	
호주	WFP	2,189,781	WFP의 영양 지원 요청(이행 약속)
합 계		45,968,035	

주: 1)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2)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음. 본 표는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2000~2016년도 데이터를 작성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10, 2017)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1 교류 협력 보도 동향

유엔, 대북 수해 지원금의 추가 편성

- 함경북도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유엔의 긴급대응지원금이 총 48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음.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는 함경북도 수해 복구 지원에 410만 달러(45억 원 상당)를 투입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인 2016년 9월 29일 25만 달러(2억 7,000만 원)를 추가 편성하였음.
  - 2016년 9월 30일 CERF는 세계식량계획(WFP)에 180만 달러(19억 8,000만 원), 유엔 아동기금(UNICEF)에 170만 달러(18억 7,000만 원), 식량농업기구(FAO)에 60만 달러(6억 6,000만 원) 등을 전달하였음.
    - 새로 배정된 25만 달러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을 통해 임산부 지원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 연합뉴스, "유엔, 대북수해지원금 추가 편성...총액 48억 원", 2016.10.01.

국내 민간단체, 북한 수해지역에 구호물자 지원

- 국내 대북 지원 단체가 해외 동포 단체를 통해 수해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구호물자를 추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회원에게 발송하는 '북 함경북도 지역 수해지원 긴급 모금 3차 소식'을 통해 "2016년 9월 29일과 30일 수해피해를 본 살림집 복구를 위한 바닥 장판과 필수 의약품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자를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단체는 "이번 물자 지원은 2016년 9월 20일과 26일의 1·2차 지원에 뒤이은 것으로 바닥

용 비닐 장판 3만 5,000㎡(약 700세대 지원용)와 아동용 지사제·감기약·해열제 등 3종의 필수 의약품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였음.

- 앞서 이 단체는 2016년 9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긴급 지원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민간단체 "북한 수해지역에 구호물자 추가 지원"", 2016.10.04.

#### 북한 주재 아세안위원회, 홍수 피해 지역 지원금 전달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재 아세안위원회가 함경북도 수해 피해 지역에 지원금을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말레이시아 대사는 전달식에서 "조선의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큰물(홍수)로 많은 인적 및 물질적 손실을 입은 데 대하여 따뜻한 위문과 동정을 표시하고 피해 지역 인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음.

연합뉴스, "북한주재 아세안위원회, 홍수피해 지역 지원금 전달", 2016.10.06.

#### 스위스,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365만 달러 지원

- 스위스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365만 달러(약 40억 원)를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지원금 가운데 190만 달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되어 북한에 분유를 보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지원금 중 10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사(IFRC)에, 5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각각 전달됐음. 주택의 지붕 자재 구매에도 25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스위스, 북한 수해복구에 40억원 지원...단일국가 최대", 2016.10.07.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적십자 통해 대북 수해 지원

- 정부의 대북 지원 불허 방침에도 민간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54개 대북 지원단체 연대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국적)에 지원금을 보냈다"고 밝혔음.
- 지원금은 모두 18만 7,000달러(약 2억 1,000만 원)로, 북민협은 이 가운데 1차분인 10만 달러를 이날 국적에 전달했으며, 2016년 10월 18일까지 나머지 지원금도 보내기로 하였음.
- 한겨레, "북민협, 국제적십자 통해 대북 수해 지원..."식량 이외 물품 지원하기로 약정", 2016.10.12.

#### 스웨덴, 북한 수재민에 47만 달러 지원

- 스웨덴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에게 47만 달러(5억 3,000여만 원)를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국제 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하여 스웨덴 정부가 자국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 스웨덴 정부의 지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에게 임시 거처와 화장실을 마련해주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 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연합뉴스, "스웨덴, 북한수재민에 47만 달러 지원하기로", 2016.10.25.

#### 국제적십자위원회, 북한 주택 복구 비용 50만 달러 지원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 주택 복구 비용으로 50만 달러(5억 7,000만 원)를 긴급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북한 홍수 긴급 대응 보고서'를 통해 "ICRC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50만 스위스 프랑, 미화 50만 달러를 투입하였다"면서 "이 자금은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하였음.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주택을 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주택 2만 가구를 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달(2016년 9월) 26일 건축 전문가를 수해 복구 현장에 파견해 주택 건설 작업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재민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석탄과 겨울옷, 담요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적십자위원회, 북한 주택복구 비용 50만 달러 지원", 2016.10.28.

#### 미국 민간 구호 단체, 북한의 의료 지원 대상지 및 수해 지역 방문 예정

○ 미국의 민간 구호 단체가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과 수해지 방문을 위하여 2016년 10월 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대북구호 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CFK)은 결핵과 B형 간염을 앓는 환자 치료와 수해지에 보낸 구호 물품 확인 등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후원자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통해 밝혔음.
- 하이디 린튼 상임이사는 "2016년 마지막 지원 사업"이라면서 "개성에 있는 제2 간염 병원의 실험실을 개조하고, 국가결핵표준실험실에 의료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美민간구호 단체, 의료지원·수해지방문차 방북 예정", 2016.11.02.

### 러시아의 북한 수해 구호물자, 함경북도 도착

○ 러시아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하여 지원한 물자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도착하였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음. 중앙통신은 "(2016년 10월) 15일 평양과 나선시에서 러시아 정부가 보내온 피해 복구 지원 물자 인계인수(인수인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전하였음.

- 앞서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북한 수해 지역 주민에게 175톤 이상의 식량과 700톤 이상의 디젤유를 구호물자로 보내기로 하였다고 (2016년 10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러시아 당국은 발표하였음.

연합뉴스, "러시아 구호물자, 북한 함경북도 수해지에 도착", 2016.11.15.

### 국제 사회,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하여 1,300만 달러 지원

○ 국제 사회가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하여 1,300만 달러(153억 원)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지원한 금액이 총 1,300만 달러였으며, 스위스와 중국, 러시아, 스웨덴, 태국, 덴마크 등 6개국이 지원에 동참하였음.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긴급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기구에 51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이는 전체 지원 금액의 40% 수준임.
- 국가별로는 스위스 정부가 36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중국이 300만 달러, 스웨덴이 47만 달러, 태국 30만 달러, 덴마크 23만 7,000달러 순이었음.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식품 184톤과 디젤유 704톤을 지원하였음.

연합뉴스, "국제 사회, 북한 수해복구에 1천300만 달러 지원", 2016.11.19.

### 프랑스 NGO, 북한 내 120만 유로 규모의 영양개선사업 시작

○ 프랑스 구호 단체(NGO)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2016년 9월부터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채소 재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구호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120만 유로(약 15억 원)를 지원받아 2019년 8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이번 사업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2,300여 명을 비롯해 취약계층 4만 3,000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단체는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으로부터 134만유로(약 17억 원)를 지원받아 2019년 1월

까지 진행 예정인 물고기 양식 사업도 별이고 있음.

연합뉴스, "프랑스 NGO, 북한서 15억원 규모 새 영양개선 사업", 2016.11.22.

#### 북한, 독일 국제기구에 진료소 건설 요청

○ 북한이 독일의 한 국제구호기구에 홍수 피해 지역에 진료소 건설을 요청하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북한에서 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국제구호 단체 '카리타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진료소 건립에 대한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단체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방문해 답사를 마쳤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건축 자재를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뉴스1, "북한, 독일 국제기구에 '수해 지역에 진료소 지어달라' 요청", 2016.11.23.

#### 유럽 NGO 3곳, 북한 수재민에 32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 지원

○ 유럽의 비정부기구(NGO) 3곳이 함경북도 수재민에게 총 32만 달러(약 3억 8,000만 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 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월드와이드가 16만 달러, 독일 민간구호 단체 벨트홍게르힐페가 8만 달러,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8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하였음.

연합뉴스, "유럽 NGO 3곳, 북한 수재민에 4억 원어치 구호 물품 지원", 2016.12.03.

#### 호주, 북한 취약 계층 식량 지원금 220만 달러 기부

○ 호주 정부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 기금으로 220만 달러(약 25억 원)를 기부하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호주 국제개발청은 220만 달러는 2017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의 대북 지원금이라고 밝혔음. 국제개발청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 우유 분말과 두유를 공급한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호주,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금 220만 달러 기부", 2016.12.07.

#### EU, 북한 재해 재난 구호품 확보를 위하여 30만 유로 지원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재해 재난에 대비한 구호품 확보를 위하여 30만 유로(약 3억 7,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이 자금은 핀란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서 재난 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적십자사(IFRC)에 전달될 예정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2016년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로 북한이 그간 비축해 놓은 구호품을 거의 모두 사용하였다"며 "이번 결정은 북한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U, 북한재해재난 구호품 확보에 3억 7,000만 원 지원", 2016.12.10.

#### 스위스의 대북 지원 물자, 북한 남포항 도착

- 스위스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분유가 남포항에 2016년 12월 12일 도착하였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통신은 이날 "조선에 스위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제공하는 우유가루(분유)가 12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고 짧게 보도하였음.

연합뉴스, "스위스 대북지원 분유, 북한 남포항에 도착", 2016.12.13.

#### FAO, 북한 수해지 농업 피해 복구를 위해 50만 달러 지원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함경북도 수해지에서 발생한 농업 피해 복구를 위하여 미화 50만 달러(약 5억 8,000만 원)를 지원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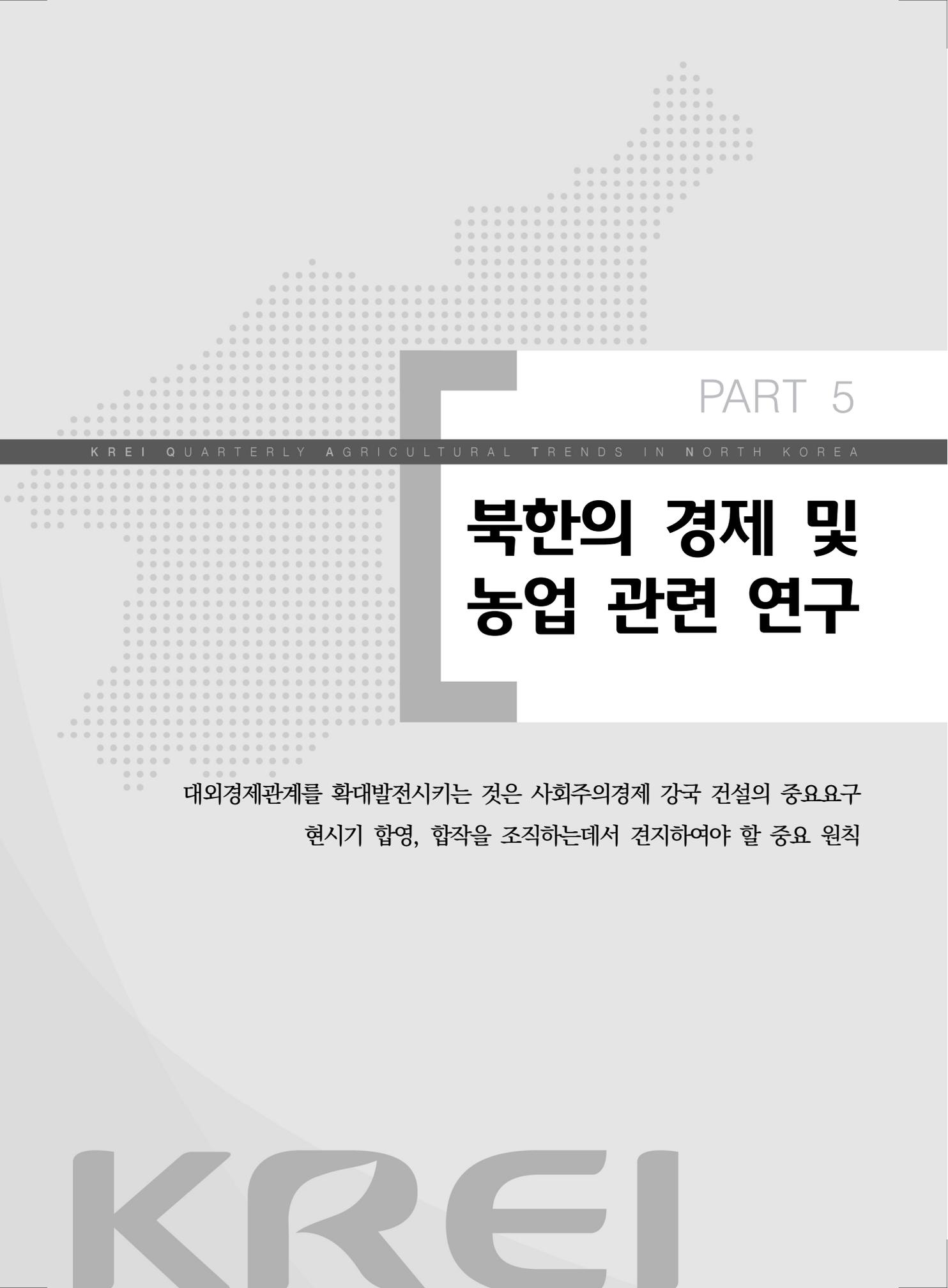
- 크리스티나 코슬렛 식량농업기구(FAO) 조기경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2016년) 11월부터 북한 수해지 내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며 "이 사업은 내년(2017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음.

- FAO는 온실 건축 자재, 홍수로 파괴된 가축우리와 탈곡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도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FAO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후스마트농업'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음.

- FAO는 함경북도 지역 내 1만 3,628명의 협동농장 종사자가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연합뉴스, "FAO, 북한 수해지 농업피해 복구에 5억8천만 원 지원", 2016.12.13.



PART 5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요구  
현시기 혁명,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 원칙

KREI



#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요구\*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장 순 남

-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페이지)
-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임.
-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로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 강국의 대외 경제적 권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기 때문임.
-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 강국은 대내적으로는 자립 경제 강국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높은 대외 경제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강국임.
  - 자립 경제 강국은 결코 《고립경제》나 《폐쇄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님. 그것은 오히려 강한 대외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대외 경제 관계를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높은 대외 경제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 높은 대외 경제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를 결코 경제 강국이라고 말할 수 없음.
- 나라의 대외 경제적 권위는 대외 경제 관계의 확대·발전을 통하여 높아짐.
  - 오늘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는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
  - 국제 시장에서 높은 대외 경제적 권위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 경제 강국 건설을 힘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2권 제3호

있게 추동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음.

-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며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고 있는 것도 바로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강국의 대외 경제적 권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됨.
-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로 되는 것은 둘째로, 그것이 첨단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 강국 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임.
  -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 화를 실현해야 하며 그러자면 첨단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임. 첨단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생산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하루빨리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할 수 있음.
-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다른 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여야 함.
  -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귀중한 시간과 자금을 낭비할 수 있음.
    -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자기 기업의 국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며 다른 나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하지 않음.
-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합영, 합작,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공간들을 잘 이용하면 첨단 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음.
  - 다른 나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북한에 초청하여 과학기술 토론회, 강연회 등을 조직하거나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다른 나라에 참관단, 실습생, 유학생들로 파견하여 해당 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을 전수해 오도록 하는 인적 교류와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창조된 설계문건 등과 같은 기술문건을 비롯한 과학기술적재부와 과학기술도서의 교류와 같은 물질 교류 등은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자체의 연구 비용과 노동력, 시간을 절약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첨단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 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로 되는 것은 셋째로,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 현재 북한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음. 경제건설을 다그쳐 경제 강국을 일떠세우고 인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게 됨.
  - 북한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임.
-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북한에 없거나 극히 부족하면서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긴요한 것들은 일정한 기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입해야 함.
- 대외 경제 관계에서 기본인 대외 무역, 수출 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짐.
  - 농산물과 축산물, 특수한 공예작물, 과일과 북한에 풍부한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희토류와 같은 자원들을 2차, 3차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파는 가공품 수출 무역과 특허권, 실용신형권,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거래와 같은 기술 무역, 대외수송 봉사 및 관광 봉사 무역, 기술개발 봉사와 자문 봉사와 같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실력에 기초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적 봉사 무역 등은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짐.
-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대외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 수출과 기술 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 대외 무역에서 신용을 지켜야 함.
  - 대외 무역에서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무역 거래와 관련한 협정, 계약 등을 통하여 무역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 다시 말하여 계약에서 합의된 무역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어김없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임.
  - 대외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자면 당의 대외 무역정책과 국가의 무역 관련 법을 옳게 인식하고 해당 시기 나라의 경제기술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무역 계약을 옳게 작성해야 함. 수출자로서 계약에서 합의된 수출품의 양과 질을 정확히 보장하고 납입 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수입자로서 수입품 대금과 수입 과정에 있게 되는 수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요금을 제때에 지불하고 수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입된 상품을 물리는 현상을 없애야 함.

- 대외 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해야 함.
  - 대외 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한다는 것은 무역 거래 상대국을 어느 한 나라에 국한시키지 말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확대·발전시켜나간다는 것임.
  - 대외 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하자면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을 발전시켜야 함.
- 가공품 수출과 기술 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해야 함.
  - 가공품 수출과 기술 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전의 원료, 자원 수출 위주의 무역으로부터 2차, 3차 가공품, 완제품 수출 위주의 무역을 진행한다는 것이며 상품 수출 위주의 무역으로부터 기술 무역, 봉사 무역 위주의 무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임.
  -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가공품 수출과 기술 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하자면 생산 기술 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제품 가공 기술을 첨단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실력을 높여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치 있는 기술 무역 상품과 지식형 봉사 제품을 내놓아야 함. 뿐만 아니라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북한에 찾아오는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보장하는 봉사 시설들을 잘 꾸리고 현대화하며 관광봉사의 질을 높이고 봉사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야 함.
-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하는 것임.
  -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한다는 것은 합영, 합작의 대상과 형식의 선정 등을 북한의 구체적 조건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전반적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 합영, 합작을 조직함에 있어서 철저히 북한의 실정과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대상을 바로 정해야 함. 부차적인 부문이나 기업들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원료, 연료나 팔아먹는 식으로, 자본가들의 기술 갱신 부담이나 덜어주고 돈주머니만 불러 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합영, 합작을 진행하는 과정에 첨단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선정해야 함. 그리고 합영과 합작 형식 가운데서 어느 형식이 투자가의 기술을 빠른 기간 안에 북한의 것으로 만들어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를 잘 타산해야 함.
-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임.

-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경제개발구들에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투자에 유리한 법과 규정,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해 준다는 것임.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자면 세계 여러 나라 경제개발구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률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 외국투자자들이 북한의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투자에 더 흥미를 가지고 더 많이 투자하도록 새로운 법과 규정을 제정하는 사업과 현재의 법과 규정에 대한 수정·보충 사업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잘해야 함. 그리고 경제개발구들에서 인프라 건설을 더욱 힘 있게 벌리고 토지 이용, 노동력 채용, 세금 납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특혜 조건들을 실시해야 함.

○ 모든 대외 경제일군들은 대외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함.

# 현시기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 원칙\*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리명숙

- 김정은은《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고 말하였음(《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단행본 56페이지).
  - 김정은은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하여 그것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였음.
-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 원칙은 크게 두 측면이 있음. 하나는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하는 것임.
- 현시기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 원칙은 첫째로,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하는 것임.
  -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한다는 것은 합영, 합작을 어디까지나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조직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함.
    -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해야 합영, 합작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음. 자본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한 사상의 침투를 막고 부정적인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
  -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북한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합영, 합작하는 것임.
    - 북한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기본 요구임.
    - 다른 나라에서 원료와 자재를 전적으로 들여와 운영할 수 있도록 합영, 합작기업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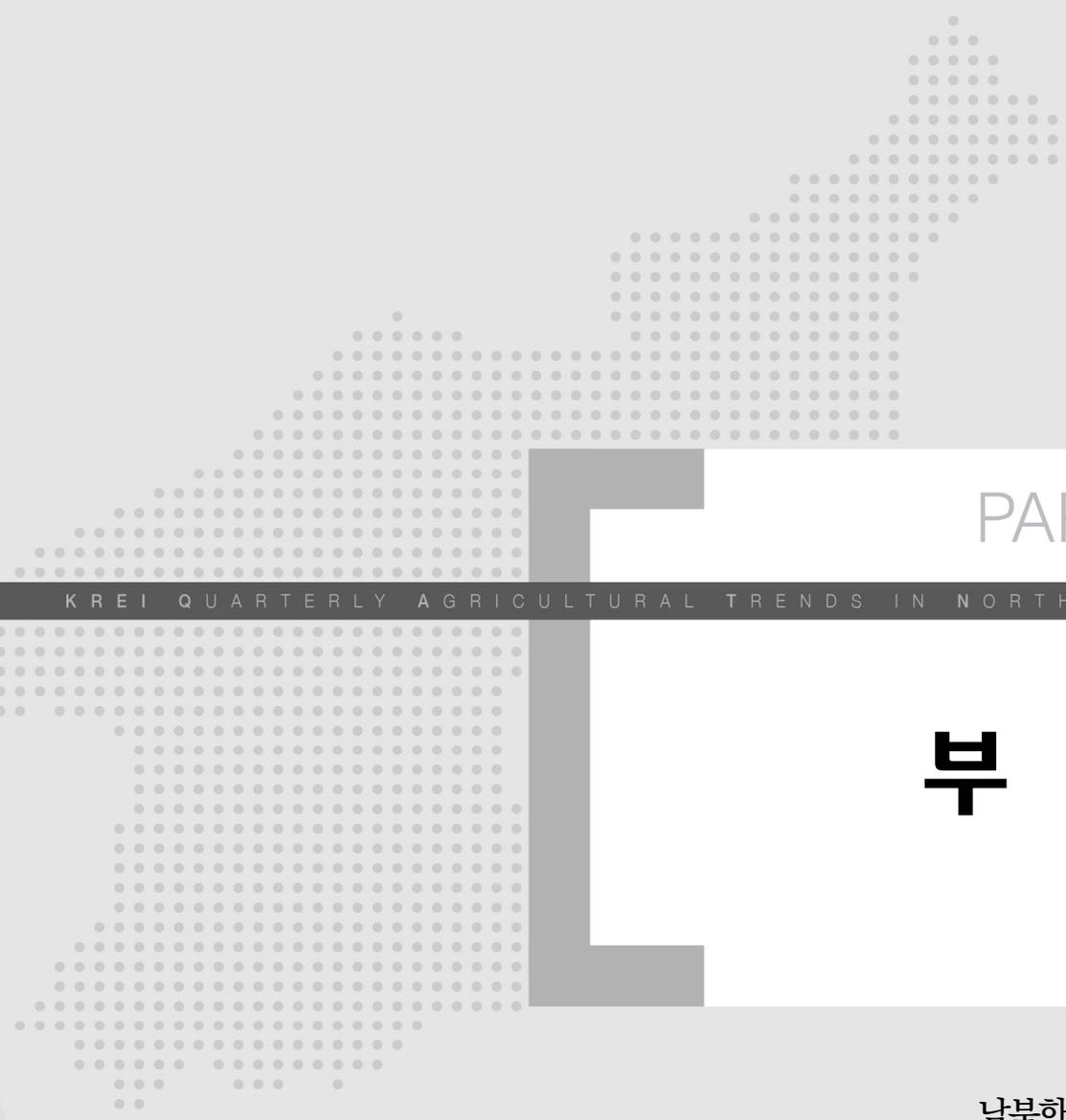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2권 제4호

- 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아무런 의의가 없음.
-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해야 그것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 다른 나라와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북한의 원료와 자재에 기본적으로 의거해야 하는 것은 합영, 합작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임.
-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선진 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설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된 공장, 기업소들을 합영, 합작하는 것임.
- 경제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 것은 선진 과학기술과 기술적으로 걸린 설비,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자는데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음. 합영, 합작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자체의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합영, 합작을 반드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향상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선진기술과 앞선 설비들을 해결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 설비들과 첨단기술을 나라의 기술발전계획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것으로 조직되어야 함.
  - 선진기술과 현대적인 설비를 받아들인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합영, 합작은 아무런 의의가 없음. 다른 나라와 하는 합영, 합작은 선진 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설비를 받아들일 때 나라의 경제를 짧은 기간에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세울 수 있음. 그러한 합영, 합작만이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합영, 합작에서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북한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 것임.
- 북한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합영, 합작을 조직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합영, 합작의 덕을 볼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합영, 합작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지 않고 남의 배나 불리는 합영, 합작은 할 필요가 없음. 그것은 합영, 합작의 주요목적이 대외 경제 관계의 다른 형태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발전되고 앞선 선진기술과 설비들을 제때에 안전하게 받아들여 나라의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데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에서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고 현대적 인 설비를 들여오며 북한의 이익에 맞게 이윤 분배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조직해야 함.
- 다른 나라에 나가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 경우에도 조국의 융성 발전과 나라의 경제건설에 도움이 되며 이윤이 많이 날수 있는 것을 합영, 합작해야 함.
  - 그 어떤 나라의 회사와 그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합영, 합작을 하더라도 언제나 나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합영, 합작을 조직할 때 주체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였다고 말할 수 있음.
- 현시기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 원칙은 둘째로,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하는 것임.
  -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제적인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합영, 합작을 조직한다는 것을 말함.
  - 우리가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 것은 북한에 없거나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는 것에 있으므로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실리를 보장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됨.
    -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지 못하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없게 됨.
  -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합영, 합작을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들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하는 것임.
    -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들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 것은 우리 당의 합영, 합작정책임.
    - 합영, 합작의 조직을 통하여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들을 끌어들이야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합영, 합작을 조직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함.
  -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생산 부문들에서의 합영, 합작을 많이 조직하는 것임.
    - 합영, 합작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자면 합영, 합작을 생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조직하고 비생산 부문들에서는 될 수록 제한해야 함. 생산 부문들에 대한 합영, 합작조직을 장려해야 합영, 합작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음.
    - 생산 부문들에 대한 합영, 합작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인민 경제 부문별로 합영, 합작의 방법으로 현대화해야 할 대상들을 바로 선정하고 현대적인 기술과 설비들을 받아들이는 것임.

-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합영, 합작을 통하여 생산한 상품들은 될수록 수출하도록 하는 것임.
  - 합영, 합작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무질서하게 판매되는 것을 내버려두면 국내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에 지장을 주게 되며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해외로 유출 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합영, 합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를 엄격히 장악·통제해야 합영, 합작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음.
- 합영, 합작을 실리 있게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합영, 합작에 대한 경제적 타산을 바로 하는 것임.
  - 경제적 타산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로 하지만 합영, 합작을 국내에 조직하는 경우 더욱 중요함. 그것은 합영, 합작이 장기성을 띠며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임.
  - 합영, 합작을 조직하는데서 경제적 타산을 바로 해야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합영, 합작이 이바지할 수 있음.
  - 합영, 합작에 대한 경제적 타산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이익의 견지에서 경제적 타산을 하는 것임.
  - 경제적 타산을 국가적인 이익의 견지에서 바로 하자면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 외화자금의 해결, 인프라 건설, 새로운 전략자원의 해결, 환경보호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충분히 타산해보고 새로운 합영, 합작대상을 나오거나 이미 있는 국내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와 선진기술을 들여올 수 있는 합영, 합작기업들을 조직해야 함.





PART 6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부 록

남북한 교역 통계  
북한의 시장 동향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 KREI



◆ 남북한 교역 통계<sup>1)</sup>

표 1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2012	36,504	377	1,073,952	45,311	705	897,153	1,971,105	△176,799
2013	20,566	359	615,243	25,562	644	520,604	1,135,847	△94,640
2014	38,460	349	1,206,202	47,698	697	1,136,437	2,342,639	△69,765
2015	45,640	362	1,452,360	55,267	718	1,262,116	2,714,476	△190,244
소 계	371,622	847	12,410,599	426,027	1,105	12,074,570	24,485,169	△336,029
2016.1	4,180	211	147,344	4,986	430	119,192	266,536	△28,152
2016.2	1,166	151	38,536	1,088	271	26,561	65,097	△11,975
총 계	376,968	848	12,596,479	432,101	1,105	12,220,323	24,816,802	△376,156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6호.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 2016.05.24.

1) 유의미한 교류협력 통계가 없어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은 2016년 3월호부터 발간되지 않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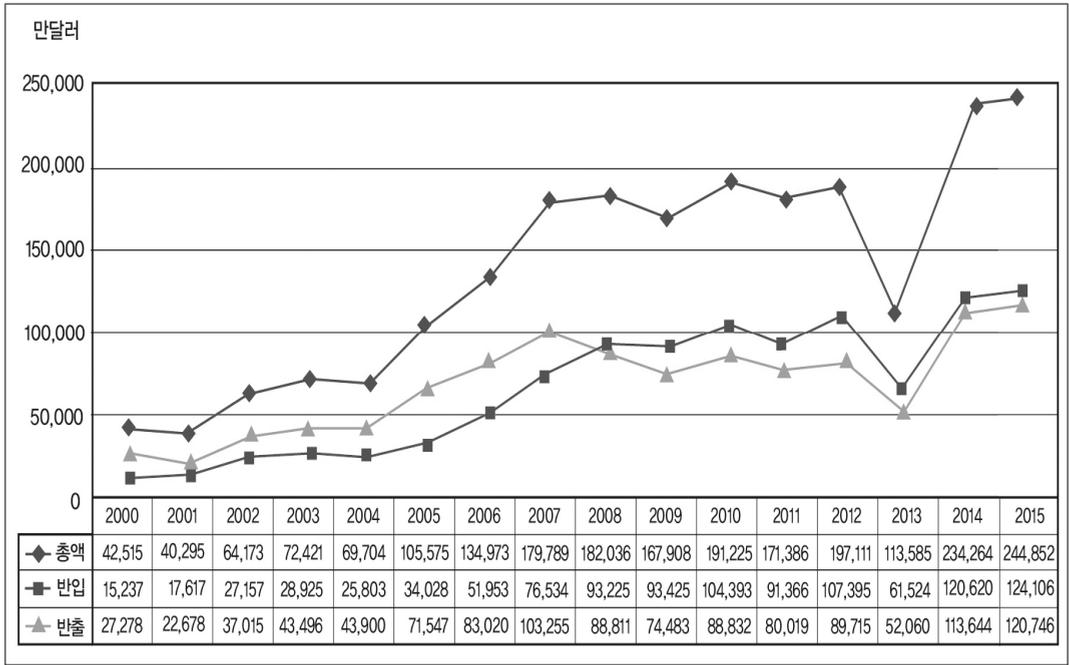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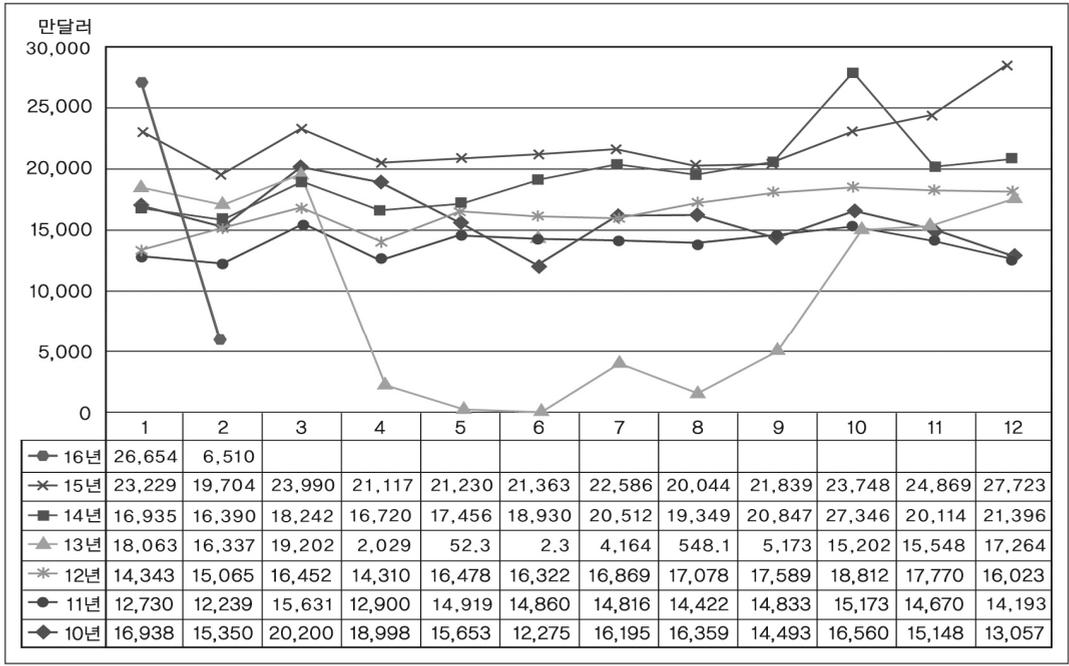


표 2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19	183	137,058	207,913	65,516	1,760	6,278	4,685	78,239	286,152	△129,674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66,270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2011	3,343	-	0	2,263	5,607	24,340	641	318	2,167	27,464	33,071	21,857
2012	4,494	-	180	1,951	6,626	25,935	1,254	1,239	1,858	30,286	36,912	23,660
2013	2,170	-	13	1,614	3,798	14,697	814	334	1,192	17,036	20,834	13,238
2014	4,416	-	45	1,798	6,262	25,609	3,964	707	1,517	31,801	38,063	25,539
2015	5,649	-	62	1,935	7,644	18,802	1,503	967	2,516	23,788	31,432	16,144
소 계	534,608	3,336	51,445	1,030,335	1,619,729	1,047,010	34,288	32,989	34,725	1,149,012	2,768,741	△470,717
2016.1	521	-	1	313	835	1,389	13	16	92	1,510	2,345	675
2016.2	369	-	-	96	465	391	1	3	43	438	903	27
총 계	535,498	3,336	51,446	1,030,744	1,621,029	1,048,790	34,302	33,008	34,860	1,150,960	2,771,989	△470,06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4~296.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 2016.05.24.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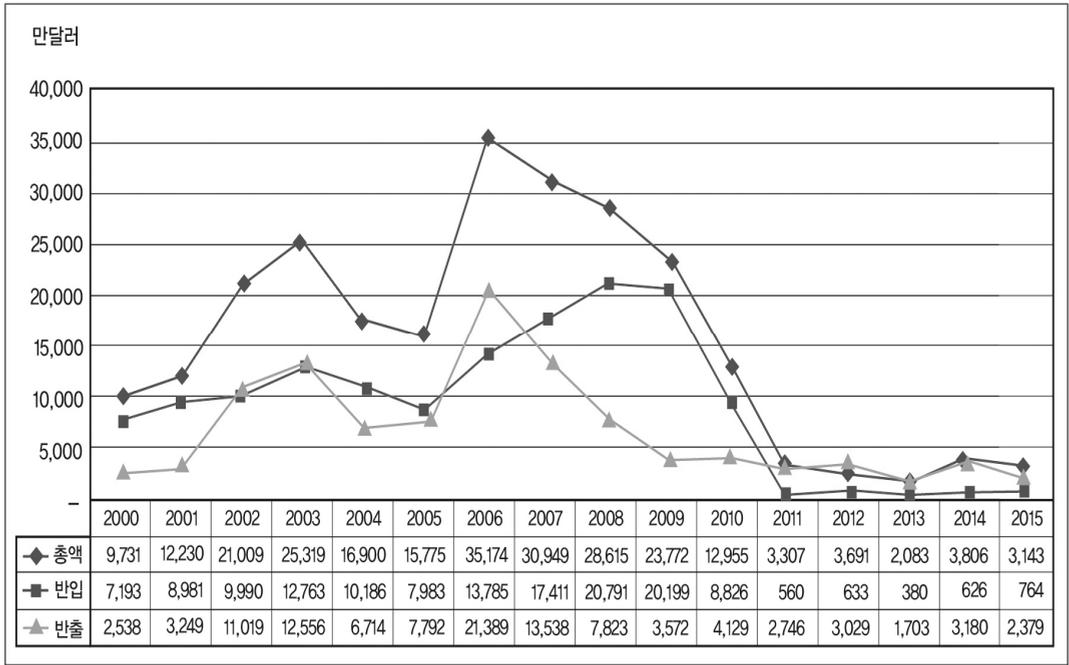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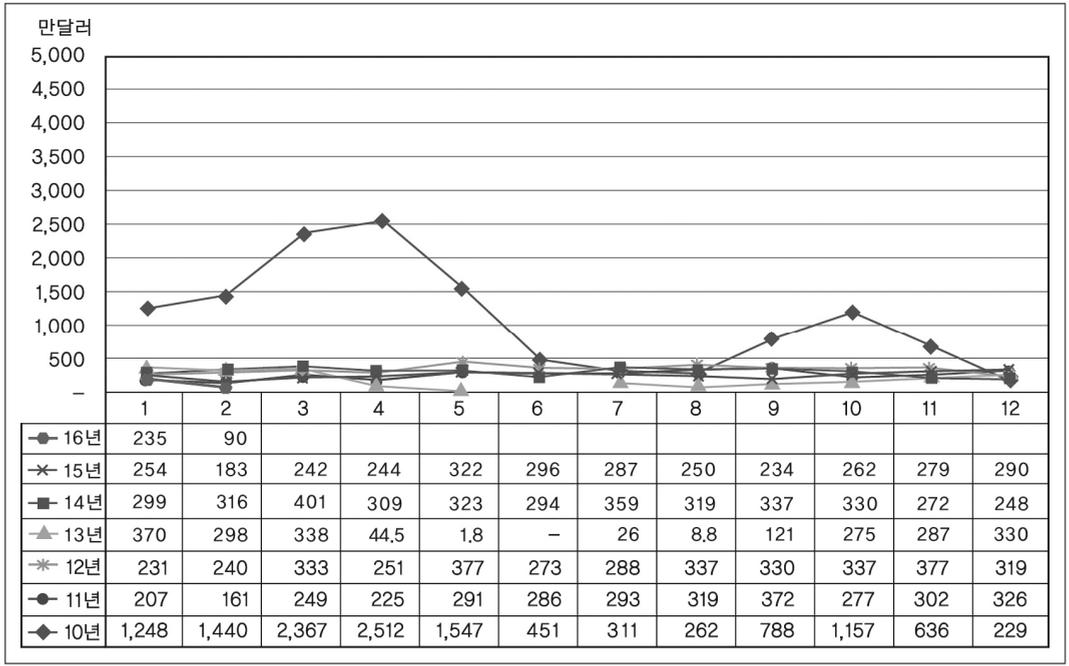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 북한의 시장 동향

강미진<sup>1)</sup>, 임채환<sup>2)</sup>

북한 주민은 시장 물가에 매우 민감함. 많은 북한 주민들은 자체적인 생산물이 없어 주로 장사에 의존해 생활하며, 이들은 외부 시장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자기 생활 권역에 공급하고 있음. 최근 연간 손전화 보유 주민이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은 가격 변동, 농산물 작황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음. 특히 최근 북한 주민의 관심사는 대북제재, 국내생산물의 흥작과 풍작에 대한 정보라고 함. 이번 호에서는 계절 수요를 갖는 품목과 최근 북한 내 공급이 변화한 품목을 위주로 북한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음.

### ○ 계절성 품목의 가격 변화 및 시장 유입

#### 1. 호박

2016년 4/4분기 북한 국경 근처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호박을 찾기 어려움. 이는 북한에서 하우스 농사가 발전해 있지 않고, 저장 시설이 미비하여 호박 등 계절적 성격을 갖고 있는 품목들은 시장에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임.

북한의 불리한 경제적 여건은 겨울철 채소 공급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호박, 무 등 계절 채소를 찾기 힘들. 특히 저장성이 없는 호박은 제철이 지나면 보기 어렵다고 전해짐.

평양과 함흥 지역에서는 2, 3분기까지 하우스(평안남도 평성시 삼화동, 평양시 만경대구역 온실농장, 함흥남새온실)를 활용하여 호박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하우스 농사가 보급되지 않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함. 2016년 4/4분기 북한 내 조사된 지역 가운데 평양과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북청의 지역 시장에는 호박이 없었음. 반면,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 회령, 평안남도 신의주의 시장에서는 호박이 있었음. 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역 및 밀수로 계절 채소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전해짐.

표 1 2016년 북한의 지역별/분기별 호박 가격

단위: 북한 원

	평양	신의주	혜산	북청	회령	원산
1분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분기	4,500	4,800	5,000	4,600	5,000	4,750

1) 데일리NK 북한팀 팀장/기자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원

	평양	신의주	혜산	북청	희령	원산
3분기	1,650	1,500	1,500	1,650	1,600	1,700
4분기	없음	2,100	2,300	없음	2,000	없음

자료: 데일리NK

## 2. 수동분무기

수동분무기는 협동농장 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필수 품목으로 사랑받고 있음. 2016년도 수동분무기 가격은 1분기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하락하였으나 이후 농번기 수요에 따라 변동하였음. 수동분무기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며 국경 지역의 수동분무기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또한 북한 내 수동분무기 가격은 중국 현지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리터의 물약을 넣은 네모진 통이며 어깨에 뿔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음. 오른쪽에 위아래로 압력을 주면 통으로 연결된 고무관의 끝부분에 있는 분사구로 약이 분사됨.

그림 1 북한의 수동분무기



자료: 조선중앙텔레비. 2015.6. “병사의 고향소식”. 스크린 캡처

2016년 초 북한의 싼 가격의 수동분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해당 품목의 가격은 이전 가격(약 16만원)에 비해 2배 이상 하락한 5만 원 대에 판매되기도 했음. 농번기인 2, 3분기에는 수동분무기가 많이 필요하여 이 때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 추세였음.

북한에서는 농촌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주민도 개인 농사(텃밭농사)를 짓고 있으며, 향후 북한 내 수동분무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16년 북한의 지역별/분기별 수동분무기 가격

단위: 북한 원

	평양	신의주	혜산	북청	회령	원산
1분기	55,000	50,000	50,800	53,000	53,000	53,000
2분기	105,000	84,000	100,000	120,000	100,000	115,000
3분기	100,000	90,000	100,000	103,000	100,000	105,000
4분기	100,000	90,000	90,000	101,000	100,000	103,000

자료: 데일리NK

### 3. 비료

북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비료들은 요소비료이고 질소 복합비료라고 불리는 비료가 일부 있음. 비료 수요자가 집중되는 시기인 4월 하순경의 요소비료 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3천 원 에서 거래되었음. 4-5월 농번기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는 무역 기관에게 수출입 무역 워크(허가증) 승인을 완화한다는 조건으로 비료 상납을 지시하였다고 전해짐.

이후 2분기는 비료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료 가격이 전기에 비해 하락하였음. 이는 2016년 김정은이 밝힌 신년사에서 농산, 수산, 축산을 3대축으로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이밖에도 흥남 비료공장과 인접한 원산, 북청 지역의 비료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2016년 북한 여러 지역의 요소 비료 가격추이

단위: 북한 원

	평양	신의주	혜산	북청	회령	원산
1분기	3,200	3,200	3,175	2,980	3,200	2,900
2분기	3,000	2,900	2,755	2,860	3,000	2,800
3분기	2,500	2,300	2,050	2,150	2,060	2,000
4분기	2,000	2,000	2,000	1,980	2,100	2,000

자료: 데일리NK

## ○ 북한 가공식품의 시장 공급량 확대 및 담배 수출 확대

### 1. 음료수, 맥주

북한의 금킵체육인종합식료공장(평양 소재)에서 생산되는 각종 탄산음료와 비타민 음료들이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음.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과향 단물-항산화단물'의 주 원료는 사과 농축액과 설탕물이며, 대동강과일단물공장에서 생산된다고 알려져 있음. 구체적인 성분 배합비는 표기되어 있지 않음. 보관 적정 온도는 2~15도씨이며, 보관 기일은 생산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알려져 있음. 복숭아 단물의 당 함유량은 10%로, 주원료 복숭아, 설탕임. 보관 기일은 1년으로 복숭아 원료는 대동강과일가공공장에서 생산됨. 복숭아단물의 성분 및 배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음.

2015년 2,500원 선에서 판매되던 음료수 가격은 2016년 1분기부터 하락하였음. 최근 음료수 가격은 평양 1,600원, 신의주 1,500원, 혜산 1,650원, 북청 1,700원, 회령 2,000원, 원산 1,870원이었음. 2016년 북한에서는 음료수 원료로 활용되는 과일 수확량이 안정적이었다고 전해지며 따라서 향후 시장에서의 음료수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북한이 지난해 평양에서 맥주축제를 한 후 전국의 시장들에서 맥주가격이 동시에 하락했음. 대동강맥주, 보리맥주, 봉화맥주, 룡성맥주, 금강맥주 등 북한산 맥주의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음.

## 2. 담배

최근 북한 내 대부분 시장에서 담배 가격이 상승 추세로 확인되었음.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은 담배의 해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수출량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내 공급량이 감소하여 북한 내 담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측됨.

그림 2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가공식품



자료: 데일리NK

2017년 3월 20일, 양강도 혜산시장과 위연 시장에서의 담배 가격 중 가장 비싸게 팔리는 종류는 최근에 출품된 '백강선'이며 1갑 당 7,200원으로 쌀 1kg 보다 2,400원 높음. 가장 낮은 가격의 담배는 '풍년'이며 1갑 당 1,755원임. 시장에서 대량적으로 판매되는 담배는 '대동강', '풍년', '명심'이라며 가격은 1,700~2,000원 사이임.

「내고향 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 '고향', '천지', 「평양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 '평화', 「대성담배공장」에서 생산되는 '영광' 및 '낙원', 「룡성담배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 「북한평양담배공장」에서 생산되는 '용봉' 등의 담배 가격이 120-700원 정도 올랐음.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1)

1.1. 곡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북한쌀 (시장가격)	6,317	6,083	5,567	4,783	4,275	4,758	6,508	5,350	4,967	5,150	6,067	5,475	5,093	5,057	5,411	5,418
	0.78	0.74	0.69	0.58	0.57	0.64	0.78	0.66	0.60	0.63	0.71	0.63	0.63	0.61	0.66	0.67
북한쌀 (국정가격)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종곡쌀	5,700	5,767	5,067	4,833	4,592	4,875	5,842	4,833	5,017	5,100	5,175	5,125	5,068	4,750	4,975	5,015
	0.71	0.71	0.62	0.59	0.61	0.65	0.70	0.59	0.61	0.62	0.61	0.59	0.62	0.57	0.60	0.62
두부콩	6,117	6,517	6,283	5,717	5,233	5,233	5,417	4,717	4,425	4,583	3,567	3,898	3,845	3,845	4,378	4,403
	0.76	0.80	0.77	0.69	0.70	0.70	0.65	0.58	0.54	0.56	0.42	0.44	0.47	0.46	0.53	0.55
통옥수수 (시장가격)	2,550	2,333	2,267	2,083	1,525	2,733	2,917	1,958	1,667	1,817	2,058	2,092	2,012	1,842	1,088	1,125
	0.32	0.29	0.28	0.25	0.20	0.37	0.35	0.24	0.20	0.22	0.24	0.24	0.25	0.22	0.13	0.14
통옥수수 (국정가격)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감자	717	908	950	1,083	967	833	1,193	1,177	1,100	983	950	898	890	483	883	962
	0.09	0.11	0.12	0.13	0.13	0.11	0.14	0.14	0.13	0.12	0.11	0.10	0.11	0.06	0.11	0.12
고구마	2,075					1,212		1,033	1,105	1,230	1,020	1,208				
	0.26					0.16		0.13	0.13	0.15	0.12	0.14				

1)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은 북한 내 6개 시장의 평균 가격임

### 1.2. 채소과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사과	6,083 0.76	5,833 0.71	6,650 0.82	5,617 0.68	5,017 0.67	4,550 0.61	4,225 0.51	4,258 0.52	4,492 0.55	4,658 0.57	3,550 0.42	3,983 0.46	2,833 0.36	1,492 0.18	1,538 0.19	1,477 0.18
배추	1,133 0.14	1,733 0.21	1,583 0.20	1,725 0.21	3,100 0.41	4,050 0.54	3,475 0.42	3,475 0.43	2,917 0.35	1,883 0.23	2,033 0.24	2,525 0.29	6,158 0.76	1,155 0.14	1,693 0.21	1,848 0.23
무우	908 0.11	1,458 0.18	1,067 0.13	1,000 0.12	1,133 0.15	1,667 0.22	1,400 0.17	1,400 0.17	1,492 0.18	850 0.10	1,033 0.12	1,265 0.14	2,808 0.35	2,000 0.24	1,030 0.13	1,180 0.15
콩나물	900 0.11				1,500 0.20	1,083 0.14		1,517 0.19	1,500 0.18	1,410 0.17	1,195 0.14	1,500 0.17				
마늘	7,933 0.99												12,808 1.58	12,808 1.54	10,567 1.28	9,892 1.23
깎													7,457 0.92	6,492 0.78	5,983 0.73	5,766 0.72
참깨													14,700 1.81	15,317 1.85	14,533 1.76	13,667 1.70
양파													7,143 0.88	6,497 0.78	5,520 0.67	5,167 0.64
건고추													25,533 3.15	25,533 3.08	23,150 2.81	21,700 2.70
호박													없음	4,775 0.58	1,600 0.19	2,133 0.26

주: 사과외 단위는 1알(약 300g)임.

### 1.3. 입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밤													12,317	12,317	10,867	10,550
곶													26,133	26,133	20,442	18,917
견과고													37,078	37,078	33,767	32,567
													4.57	4.47	4.10	4.04

### 1.4. 축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돼지고기	12,083	12,083	15,917	19,500	16,917	13,667	16,083	16,083	13,500	11,567	14,750	10,717	12,917	9,842	11,767	12,850
닭고기	1.50	1.48	1.96	2.37	2.26	1.83	1.94	1.97	1.64	1.40	1.73	1.23	1.59	1.19	1.43	1.60
					11,676	12,950	14,933						31,717	31,717	26,942	25,950
					1.56	1.73	1.80							3.82	3.27	3.22
달걀	792	842	983	1,017	892	942	1,075	1,075	1,000	800	833	917	860	655	520	590
	0.10	0.10	0.12	0.12	0.12	0.13	0.13	0.13	0.12	0.10	0.10	0.11	0.10	0.08	0.06	0.07

주1: 달걀의 단위는 1알임.

### 1.5. 수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냉동명태	7,200	8,083	7,483	6,960	6,767	6,583	6,508	6,883	6,867	6,817	11,283	13,500	14,813	13,158	13,842	13,192
마른명태	0.89	0.99	0.92	0.84	0.91	0.88	0.78	0.84	0.83	0.83	1.33	1.55	1.83	1.59	1.68	1.64
마른명태	6,583	6,617	6,350	6,217	5,683	5,500	5,400	6,567	6,458	5,925	6,492	6,683	6,424	6,467	5,402	5,540
마른낙지 (건오징어)	0.82	0.81	0.78	0.75	0.76	0.74	0.65	0.81	0.78	0.72	0.76	0.77	0.79	0.78	0.66	0.69
마른낙지 (건오징어)	3,167	3,167	3,050	3,008	2,767	2,600	2,900	2,750	2,750	2,917	2,917	3,150	4,113		5,000	5,058
김	0.39	0.39	0.38	0.37	0.37	0.35	0.35	0.34	0.33	0.35	0.34	0.36	0.51		0.61	0.63
김	6,125	563	572	842	567	567	567	567	500	520	520	520	508	508	523	524
김	0.76	0.07	0.07	0.10	0.08	0.08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7
미역	3,867	3,867	4,283	4,150	3,833	4,017	3,817	3,817	4,067	3,317	3,450	3,267		3,550	2,938	3,158
미역	0.48	0.47	0.53	0.50	0.51	0.54	0.46	0.47	0.49	0.40	0.41	0.37		0.43	0.36	0.39
소금	1,042	950	900	1,017	600	575	625	625	663	442	867	883	900	613	525	488
소금	0.13	0.12	0.11	0.12	0.08	0.08	0.08	0.08	0.08	0.05	0.10	0.10	0.11	0.07	0.06	0.06

주1: 냉동명태, 마른명태의 단위는 1마리임.

주2: 마른낙지의 단위는 20마리임.

주3: 김의 단위는 20장임.

### 1.6. 가공식품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밀가루	6,408	5,867	5,283	5,167	5,283	5,333	5,413	5,408	5,392	5,533	5,083	5,002	5,000	5,008	5,040	5,153
밀가루	0.80	0.72	0.65	0.63	0.71	0.71	0.65	0.66	0.65	0.67	0.60	0.57	0.62	0.60	0.61	0.64
(농미)국수	6,560	6,233	6,083	5,750	5,183	5,417	5,500	5,500	5,500	5,567	5,033	4,568	4,350	4,567	4,575	4,592
(농미)국수	0.81	0.76	0.75	0.70	0.69	0.72	0.66	0.67	0.67	0.68	0.59	0.52	0.54	0.55	0.56	0.57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두부	1,117 0.14	1,283 0.16	1,233 0.15	1,092 0.13	992 0.13	933 0.12	1,175 0.14	1,317 0.16	1,100 0.13	1,342 0.16	983 0.12	983 0.11	1,075 0.13	1,033 0.12	1,120 0.14	1,125 0.14
생선동조림	6,117 0.76	6,400 0.78	6,350 0.78	6,233 0.76	6,058 0.81	6,158 0.82	6,208 0.75	5,658 0.69	5,658 0.69	5,867 0.71	5,867 0.69	5,867 0.67	5,133 0.63	5,133 0.62	8,861 1.08	8,545 1.06
콩기름	13,667 1.70	14,583 1.78	15,917 1.96	16,417 1.99	15,500 2.07	15,417 2.06	16,000 1.93	16,000 1.96	12,000 1.46	13,167 1.60	13,250 1.56	12,100 1.39	12,782 1.58	12,188 1.47	12,853 1.56	13,513 1.68
과일동조림	6,100 0.76	6,100 0.75	6,100 0.75	6,080 0.74	5,833 0.78	5,783 0.77	5,783 0.70	5,783 0.71	5,783 0.70	5,783 0.70	5,383 0.63	5,317 0.61	5,277 0.65	5,277 0.64	5,317 0.65	5,192 0.64
시랑	7,450 0.93	8,167 1.00	8,250 1.02	7,917 0.96	7,450 1.00	7,183 0.96	7,217 0.87	6,350 0.78	6,400 0.78	6,042 0.73	5,683 0.67	4,695 0.54	5,182 0.64	5,630 0.68	5,058 0.61	5,192 0.64
과자	7,467 0.93	7,467 0.91	7,467 0.92	7,667 0.93	6,500 0.87	6,233 0.83	6,475 0.78	6,475 0.79	6,475 0.79	6,083 0.74	5,558 0.65	5,942 0.68	6,448 0.79	6,092 0.73	5,443 0.66	5,457 0.68
시랑가루	6,608 0.82	7,317 0.90	7,217 0.89	7,217 0.88	6,100 0.82	5,633 0.75	5,967 0.72	5,983 0.73	5,850 0.71	5,758 0.70	5,308 0.62	5,125 0.59	6,033 0.74	5,500 0.66	6,100 0.74	6,052 0.75
간장	9,417 1.17	8,583 1.05	8,583 1.06	8,333 1.01	7,633 1.02	7,950 1.06	7,950 0.96	7,950 0.98	7,950 0.96	7,883 0.96	7,883 0.93	7,583 0.87	7,083 0.87	7,083 0.85	7,033 0.85	7,058 0.88
막된장		2,967 0.36	2,967 0.37	2,883 0.35	2,517 0.34	2,267 0.30	2,267 0.27	2,267 0.28	2,267 0.28	2,167 0.26	2,167 0.25	2,167 0.25	2,125 0.26	2,417 0.29	1,837 0.22	1,812 0.23
된장	5,367 0.67	5,233 0.64	5,233 0.65	5,283 0.64	5,233 0.70	5,233 0.70	5,233 0.63	4,783 0.59	4,783 0.58	4,783 0.58	10,550 1.24	10,467 1.20				
고추장		5,250 0.64	5,250 0.65	5,167 0.63	4,933 0.66	4,933 0.66	4,933 0.59	4,700 0.58	4,700 0.57	4,700 0.57	13,333 1.57	12,983 1.49	12,983 1.60	13,267 1.60	10,908 1.32	10,823 1.34
맛내기 (조미료)	6,200 0.77	6,500 0.80	6,700 0.83	7,267 0.88	6,950 0.93	7,717 1.03	7,692 0.93	8,750 1.07	8,750 1.06	8,683 1.05	8,433 0.99	8,067 0.92	9,503 1.17	9,503 1.15	9,080 1.10	9,273 1.15
사키린					31,083 4.16	30,417 4.07	35,917 4.32	36,550 4.48	36,917 4.48	36,883 4.48	36,783 4.32	36,917 4.23				
커피믹스	610 0.08	1,200 0.15	1,717 0.21	2,000 0.24	1,717 0.23	1,050 0.14	1,375 0.17	1,400 0.17	1,508 0.18	1,900 0.23			2,033 0.25	5,000 0.60	5,067 0.61	5,040 0.63
과일주스	1,417 0.18	3,900 0.48	3,933 0.48	3,933 0.48	3,683 0.49	2,917 0.39	2,700 0.33	2,750 0.34	2,750 0.33	2,750 0.33	2,750 0.32	2,633 0.30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샘물 (신낙천물)	1,000 0.12	1,500 0.18	1,000 0.12	1,000 0.12	900 0.12	900 0.12	900 0.11	933 0.11	933 0.11	883 0.11	633 0.07	592 0.07	533 0.07	500 0.06	533 0.06	537 0.07
소주						2,500 0.33	3,000 0.36	3,000 0.37	3,000 0.36	3,000 0.36	3,000 0.35	3,000 0.34				

주1: 농마국수의 단위는 1그릇임.

주2: 두부의 단위는 1모듬.

주3: 생선 및 과일 통조림의 단위는 1개(150g, 400g)임.

주4: 맛내기의 단위는 450g임.

주5: 커피믹스의 단위는 유리통 1통 기준임.

주6: 과일주스와 샘물의 단위는 1병(500ml)임.

주7: 소주의 단위는 1병(360ml)임.

### 1.7. 비료 및 농자재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비닐박막													733 0.09	750 0.09	792 0.10	967 0.12
삼													9,110 1.12	9,568 1.15	15,010 1.82	15,300 1.90
호미													5,133 0.63	5,042 0.61	5,075 0.62	5,083 0.63
낮													6,193 0.76	5,647 0.68	5,692 0.69	5,455 0.68
수등분무기													52,467 6.47	104,000 12.54	99,667 12.10	97,333 12.09
비료													3,109 0.38	2,886 0.35	2,177 0.26	2,013 0.25

주1: 비닐박막의 단위는 1m임.

주2: 비료의 단위는 1kg임.

주3: 삼, 호미, 낮, 수등분무기의 단위는 1개임.



E02-2016-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8권 제4호

찍 은 날	2017. 3.	펴낸날	2017. 3.
발 행 인	김 창 길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820-2000)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홈페이지	<a href="http://www.krei.re.kr">http://www.krei.re.kr</a>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 02-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